

세종

2023년 문집 제36호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교훈 세제로 미래로 나아가자 세종 꿈나무



세종학교 교가

조규홍 작사
박계훈 작곡

1. 대 - 한 의 어 린 이 들 이 - 곳 에 모 여 들 어 우 -
2. 너 - 와 나 손 을 잡 고 하 - 늘 을 지 고 이 어 한 -

리 를 길 - 러 내 어 문 화 오 천 년 기 리 빛 내 고 오 -
국 을 미 - 국 속 에 알 차 게 길 러 향 기 를 내 고 오 -

우 리 는 미 쉼 간 - 에 자 람 스 런 세 - 종 의 얼 빛

내 리 세 종 학 교 빛 - 내 리 세 종 학 교

세종학교 교육목적

재미 한국인의 후예들로 하여금 성숙하고 창조적인 삶을 향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우리 겨레의 순수한 전통과 우수한 정신문화를 접하도록 교육시키며 이를 통하여 세종의 일을 배우고 받아들여 전통 있는 민족의 긍지를 갖추도록 한다.

세종학교 각종행사

- 학생 특별활동:** 친구 클럽, K-rise 클럽, 세종뉴스레터 클럽, 프로젝트-K 클럽을 통해 학생들은 취미에 맞는 클럽을 찾아 참여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강연 및 연수회:** 매 학기 교내 교사 연수회, 미시간 한국학교 협의회와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등 대외적인 강연과 연수회를 실시하고, 참가하여 보다 진보된 교육의 풍토를 세종학교 교사들의 수업 다양화에도 힘쓰고 있다.
- 각종행사:** 한국어 이야기 대회와 동요 부르기 대회, 글짓기 대회, 역사 문화 골든벨 퀴즈 등을 개최하여 미시간 주최의 여러 대회에서 각종 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교내에서도 다양한 대회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 태극마을 위문 공연:** 1990년부터 새해 1월이면 새해 맞이 잔치를 하여 연장자들이 사시는 아파트인 태극마을을 방문하여 웃어른께 세배를 드리고 위문 공연도 준비하여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세종문집:** 1986년부터 발간되어 해마다 학생 작품 등이 실려 나오고 15, 20, 25, 30, 50주년 특집호가 발간되었다.
- 세종예술제:** 1972년 6월부터 한 학년이 끝나는 6월에 학예 발표회 식으로 학부모들을 모시고 세종예술제를 열고 있다.
- 종, 졸업식 및 야유회:**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수료증, 졸업증, 학습보고서, 상장을 수여하며 세종문집을 배부한다. 식후 야유회를 개최하며 학부모님을 비롯하여 인근의 입양아 가족도 초대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교장 김선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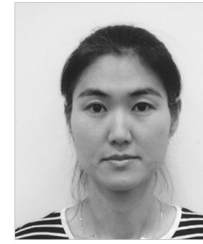
토끼반 박진희



나비반 김기원



개나리반 김미연



매화반 이윤경



난초반 노경아



무궁화반 이동순



장미반 윤희란



해반 김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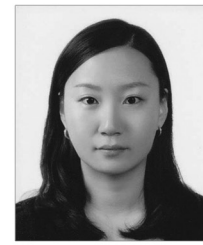
솔반 오승용



달반 배덕열



별반 김은하



하늘반 서나영



종달새반 이재선



신입반 안애리



태권도 최재훈



사물놀이 Torey Powers



음악 박현우



무용 한아름



미술 조수원



재무 양승렬

인사말6

토끼반8

나비반15

개나리반21

매화반29

난초반35

무궁화반39

장미반42

해 반47

솔 반52

달 반55

별 반58

하늘반65

신입반72

종달새반76

음악78

무용80

미술82

사물놀이, 난타84

태권도85

특별활동86

세종 행사들90

세종의 오늘94

세종 예술제98

발행인: 김선미
 편집인: 박현우, 한수경
 발행일: 2023년 5월
 발행처: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지금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교장 김선미

지난 2년간의 팬데믹이 지나고 2022년 9월 디트로이트 세종학교는 드디어 대면으로 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벌써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아주 먼 일 같이 느껴집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래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들 하죠. 힘겹고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세상을 2년 쯤 살아내고 그리고 이겨내고 만난 2022-2023학년도도 벌써 한 학년도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나름 많은 준비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다시 모이신 선생님들과 재잘대며 상기된 목소리로 학교를 가득 채운 세종학교 학생들의 한 해를 마칠 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대면의 기쁨과 설렘도 잠시 여전히 이어지는 코비드의 잔흔은 많은 학생과 선생님을 주저앉게 하고 힘들게 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 가운데 세종학교의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발전하게 하였습니다.

세종학교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오늘 우리 학생들의 세종학교 1년을 정리하는 세종 문집을 내면서 고국으로부터의 떠나면 이국땅에서 자연재해와 인간에게 주어지는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또 일상을 세우며 지치지 않는 노력을 보여주는 대한 후예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이제 이번 학년도는 팬데믹과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도기적인 한 해였다면 다가오는 학년 도는 우리에게 조금 더 도전하고 더 큰 발전을 가져다줄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변화를 당당하게 맞이하고 이겨내 만든 우리 세종학교 학생들의 작품에 아낌없는 칭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학교 학생 여러분은 진정 멋진 사람이예요!! 항상 응원합니다!!

제36호 "세종문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카고한국교육원 원장 문상연

이번에 여러분이 힘을 모아 만드신 문집은 우리 학생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들을 나타낸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문집에는 학생 여러분의 꾸밈없고 순수한 마음, 번뜩이는 재치와 슬기로우미가 깃들여 있어 더욱 자랑스러우며, 여러분이 세종학교에서 그동안 체험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경험들을 다른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고 할 것입니다.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한국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이어받은 자랑스런 후손들입니다. 특히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인 동시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랑스런 후손들입니다. 특히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인 동시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랑스런 후손들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인이 사랑하고 함께 즐기는 문화로 각광받고 있어 우리의 자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때에 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세종학교에 다니는 ‘세종인’으로서 그 이름에 걸맞게 세종대왕의 뜻을 이어 받아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후예이자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세계 시민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예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글 읽는 소리와 책장 넘기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세종학교에서 그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글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슴 깊이 담은 학생 여러분들이 미국 주류 사회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성장하는 동시에 우리 한인 동포사회에 기여하고 양국간 가교 역할을 하는 인재로 자라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끝으로, “세종문집” 발간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항상 애써주고 계신 김선미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의 지속적 신뢰와 관심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세종학교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는 꿈을 위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언제나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카고한국교육원 원장 문상연



토끼반

교사 박진희

많이도 기다렸던 아이들과의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진 한 해였습니다.

눈을 맞추며 소통한다는 게 이렇게 감동일 수 있는지 새삼 그 소중한 만남에 거듭 감사하며 일 년이
란 시간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한 공간에서 울리는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얼마나 반갑고 그리웠던 선물이었는지를 느껴가며 저 스
스로에게도 많은 배움을 가져다준 시간들이었어요.

일주일 중 하루,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작은 손과 반짝이는 눈, 재잘거리는 목소리들을 모아 한주,
한 달, 한 학기를 지나오니 어느새 꼭 권 연필로 자신의 이름도 쓸 줄 알게 되고 수줍어서 제 얼굴만
바라보던 아이들이 이제는 교실이 떠나갈 만큼 큰 소리로 자음 모음 노래를 대신 불러주게 되었습
니다.

지난 1년 동안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만큼 성장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부모님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어요. 행복한 시간들을 나눠
주셔서 우리 토끼반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김민지(봉사), 박한나(봉사), 정다은, 김선준, 임이든, 윤이든, 안서준, 손윤재, 이민혁, 길유안, 박진희(교사)
제임스이가라시, 김하윤, 이현, 박은비, 이나운, 로빈라이트, 김연우, 길아린 (당일 결석: 김희영, 이로운)

세종학교 토끼반 이름 길아린



그림 그릴때
제일 즐거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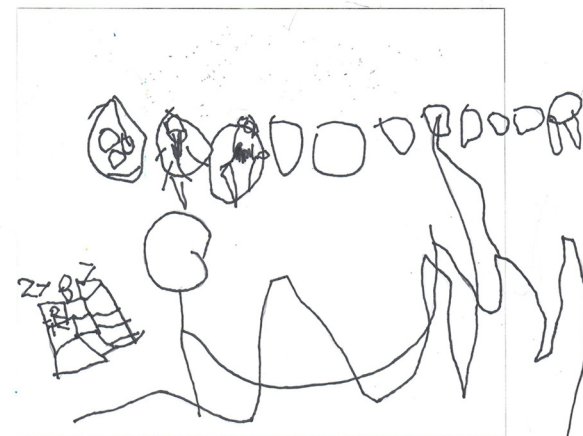
세종학교 토끼반 이름 길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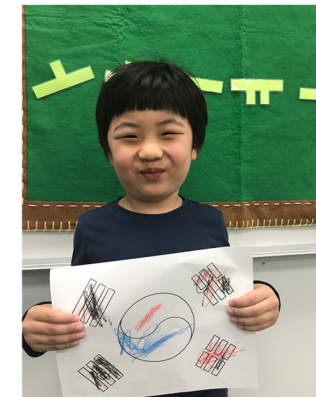
사랑하는 우리형아랑 농구
하는것이 좋아요.



세종학교 토끼반 이름 김선준



디즈니 워드
좋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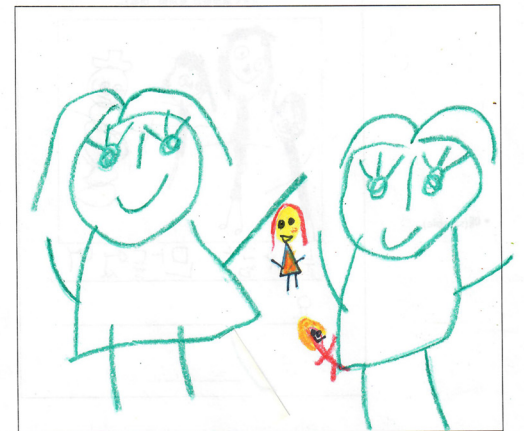
인어공주
그리고 물고기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었어요.



나는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 만나면
즐거워요



엄마랑 인형
놀이해요



Peppa pig 을 가지고
놀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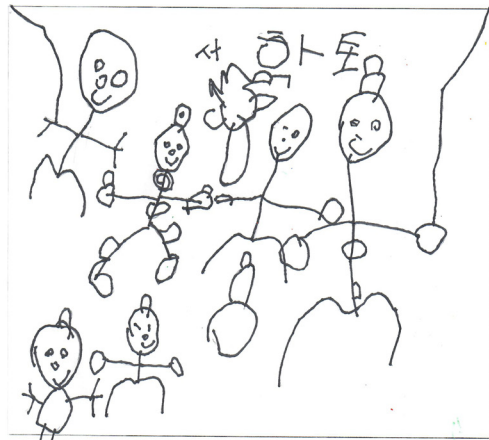
눈놀이는 재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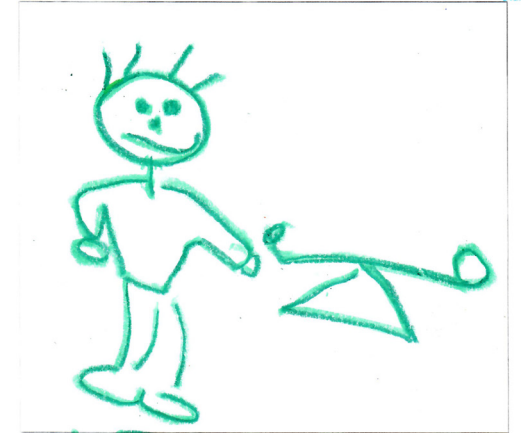
나도 이 나라의
한 사람입니다.



나는 한국에서
뮤지컬 월드에 갔었다.



친구들과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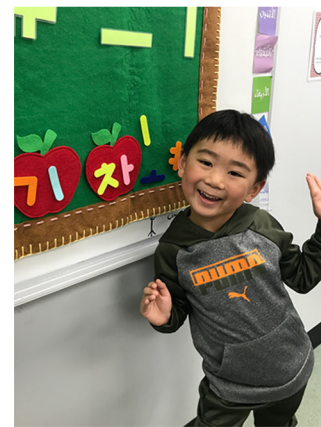
민혁이가
시도 했어요



나는 세조가 제일
재미있어요.



안녕하세요 함께
강아지들 돌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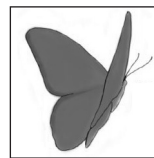
새이름파티를 좋아해요



친구랑 심내놀이터
가어요.



아빠 엄마 형나
♡ 물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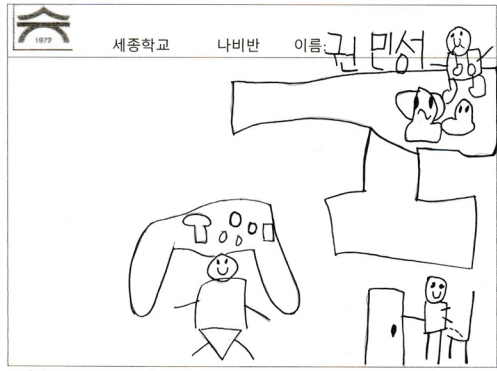
나비반

교사 김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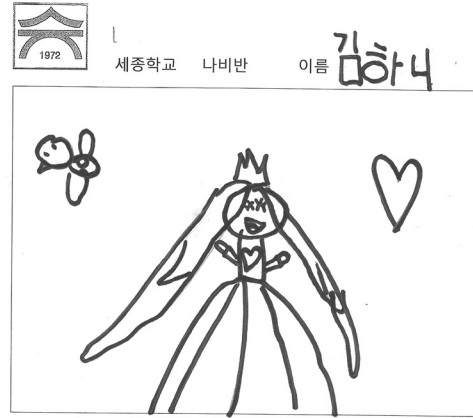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갖는 설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는 길었던 비대면 수업을 끝내고, 대면 수업을 시작한다는 설렘이 컸던 해였습니다. 또, 돌아보면 여러 가지의 아쉬움이 남지만, 나비반과 함께한 1년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나비반 친구들 모두가 함께했던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매주 열심히 봉사하는 보조교사 선생님들, 항상 큰마음으로 세종학교를 지지해 주시고, 아이들의 한글교육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반짝이는 눈망울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든 나비반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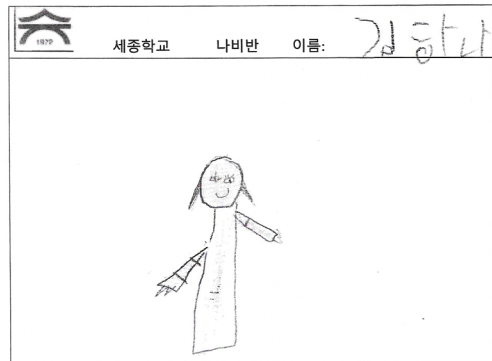
나는 공주를 좋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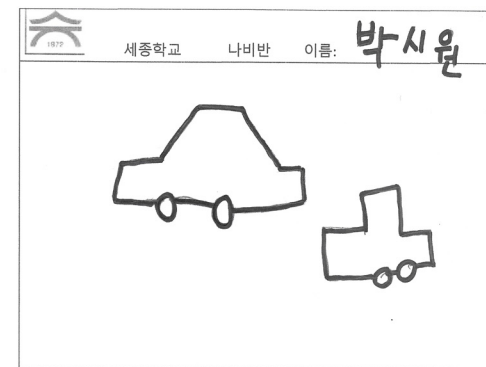
겨울 방학 때 친구들과 놀았다.



나는 우리가족을 좋아해요



나는 엄마를 좋아해요.



나는 자동차를 좋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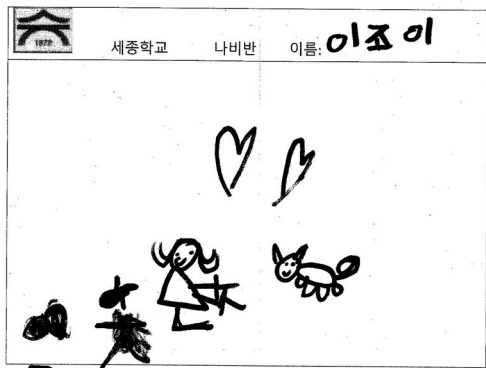




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좋아해요



나는 아빠 엄마를
좋아해요.



모지리랑 노는게
좋아요



나는 사이렌 헤드들 많이 좋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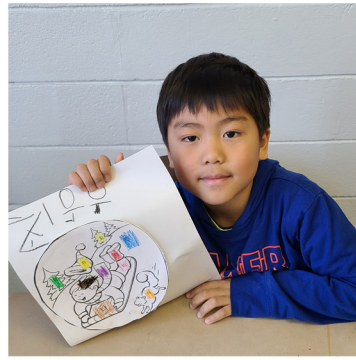


나는 공주 생일파티가
좋아요



멍멍이는 친구를 찾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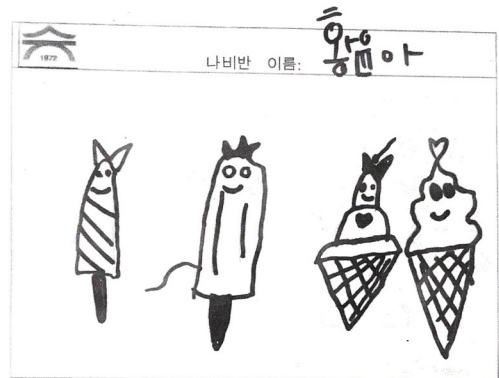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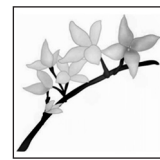
나는 상어인형을
좋아해요.



저는 라퐼젤 공주를
좋아해요.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개나리반

교사 김미연

올해는 2년간의 온라인 수업을 마치고 드디어 아이들이 직접 학교에서 수업받을 수 있었던 너무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초반 수업 시간에 자신의 이름도 읽지 못해 한참을 들여다보던 개나리반 친구들이 어느새 외워서 이름을 쓰고 한글을 하나하나씩 읽어가는 모습을 보며 매우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한국어 공부가 어렵다고 투정을 부리면서도 끝까지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정말 기특하고 대견했습니다. 더듬더듬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할까 같이 애가 타기도 했습니다. 아직 많이 어설피고 부족한 선생님이지만, 개나리반 친구들 모두가 체계는 너무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때로는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들이 힘들다고 생각되기도 했지만, 개나리반 친구들을 통해 저 또한 용기를 배우고 보람을 얻었습니다. 먼 훗날 특별하고 멋진 이 아이들이 어떤 모습의 어른으로 성장해 있을지 많이 기대됩니다.





나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주말저녁, 아바랑 동생랑
닌텐도게임 루이지메션을
합니다. 나는 주말만
기다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인형 개
인형이다.



사랑하는 내 동생 김이안
사랑하는 우리 가족
재미있게 놀고, 손잡고
놀며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보물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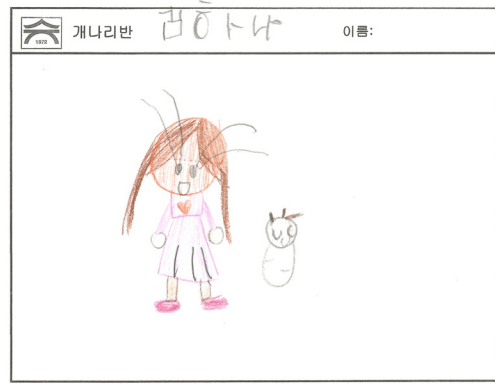
내가 좋아하는 것은
고양이이에요



나는 스키 타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빨리 가니까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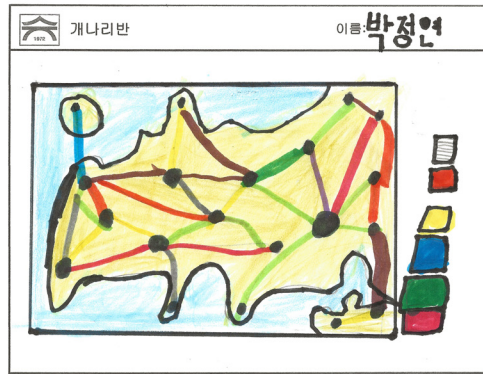
나는 우리 가족을 좋아해요.
아빠, 엄마, 언니는 소중한데요.



개나리반 이름: 김하나
 저는 커서 언마가 되고 싶어요.



개나리반 이름: 에릭
 나는 오락 실을 좋아해요
 정말 재미있어요
 나는 게임을 좋아해요.



개나리반 이름: 박정연
 나는 보드게임 좋아해요.
 재미서요. Tickjet to ride europe 제일 좋아해요.



개나리반 이름: 올리비아
 나는 놀이터에서 노는 걸 좋아해요.



개나리반 이름: 이수연
 나는 고양이를 좋아해.
 고양이는 귀여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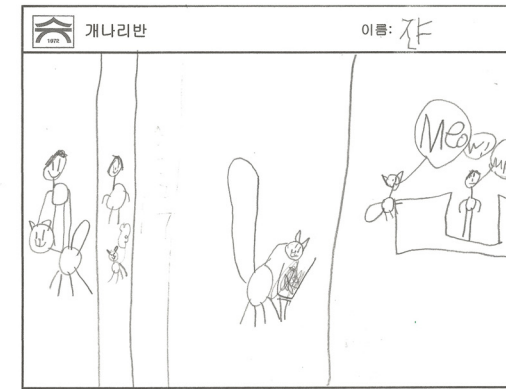


개나리반 이름: 이기연
 레고 만들기는 즐거워요,
 하루 종일 해도 지루하지 않아요.
 매일 매일 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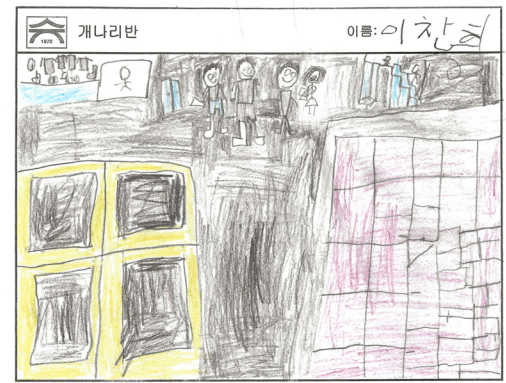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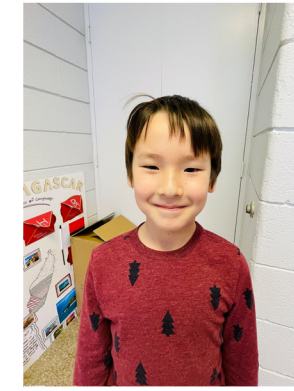




개나리반 이름: 이주아
 나는 고양이랑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은 맛있고
 고양이는 귀여우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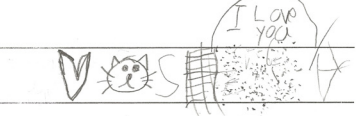
개나리반 이름: 잔
 저는 귀엽 ^{합합합} 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니는 아무곳에서 자는 것을
 좋아 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아보, 버니는 소파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버니가
 너무 좋아요!



개나리반 이름: 이찬원
 나는 개이랑 트램폴린
 놀러가는 거 좋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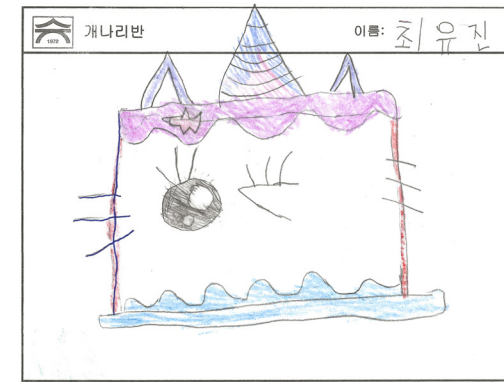
개나리반 조아인 이름: 조아인
 나는 게임하는 거를 좋아
 해요. 바빠요.



not pretty



개나리반 이름: 이원희
 나는 가족이랑 햄버거 먹는 것을
 좋아한다.



개나리반 이름: 조유진
 오늘은 제 생일 이예요.
 나는 생일 케이크를
 좋아 해요.
 케이크 는 이빠요.





나는 세일러 문 좋아요.



매화반

교사 이윤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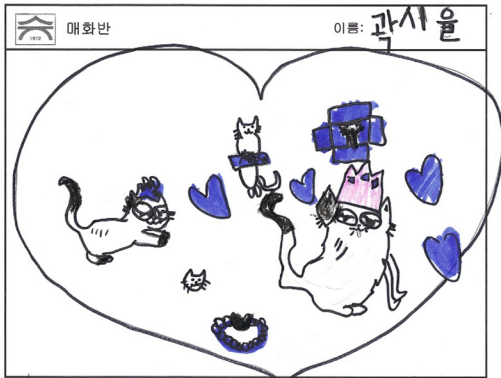
미시간의 춥고 번덕스러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는 길목에서 올해의 문집을 준비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끝내고 아이들과 직접 만나서 하는 세종학교, 아이들도 선생님도 긴장만 설렘 반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매화 반 아이들은 유난히 밝고 명랑하고 자기표현을 잘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스스한 모습으로 등교하는 아이들이지만 책상에 앉아서 선생님과 같이 수업하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기특합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서로 손들고 대답하려는 적극적인 아이들이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좀 어렵고 힘든 친구들을 도와주고 배려해 주는 매화 반 아이들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마음도 몸도 성장한 매화 반 아이들이 즐거운 경험과 기억으로 더 밝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세종학교에서 한글과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학부모님 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밝고 명랑한 매화 반 아이들이 제 마음에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고양이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고양이는 부드러워요 그리고 혼자서
할수있는게이 많아요. 또 어둠
속에서도 먹이를 찾을수있어요.
맛치지 않나요?



나는 펭귄을 좋아해요. 내가
킨더때 엄마가 펭귄인형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펭귄인형은
부드럽고, 냄새도 좋아요. 나는
이때부터 펭귄을 좋아하게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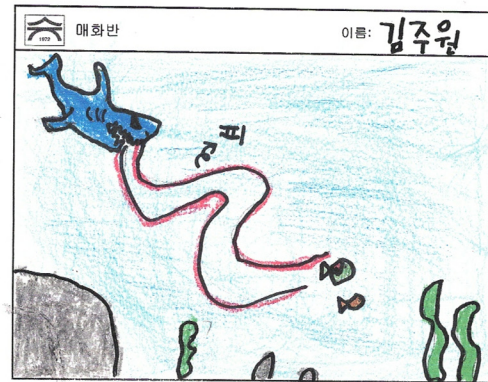
저는 고양이를 좋아해요.
우리집 고양이 로이는 오렌지색이
있어요. 로이는 죽었어요.
로이가 보고싶어요. 고양이는
너무 귀여워서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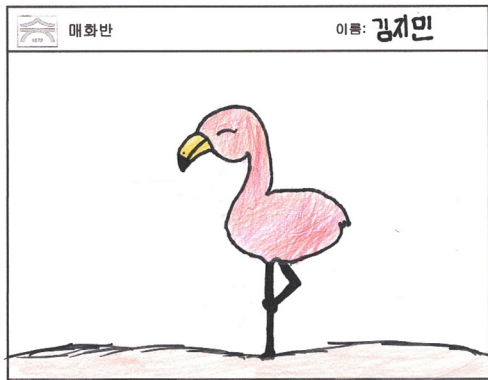
저는 상어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상어는 머리가 이빨이
있어요. 그래서 상어를 보러
바다에 가고 싶어요.



나는 물고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키울수도 있고, 내가 키우기도 할수있고,
종류도 많아요. 그중에서 나는 베키,
메가블루길, 잉어, 스파이크, 산키를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상어입니다. 왜냐하면 상어
는 바닷물속에서도 다른 물고기
들이 피냄새를 맡을수 있는
예민한 감각을 가진 동물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플라밍고입니다.
색이 아름답고, 귀여워서
좋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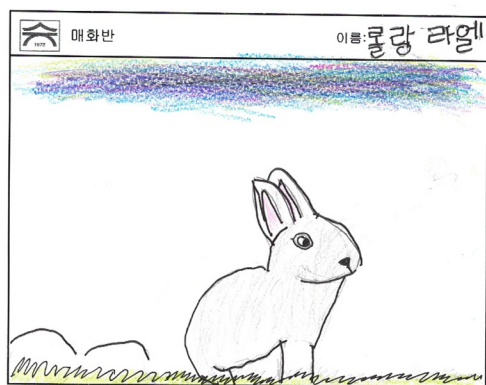
크로커다일은 알리게이터와 달리
조금기웠는 물에서도숨을
참을 수 있어서 특별하고
멋있게 느껴집니다.



나는 토끼가 귀여워서
좋아요.



나는 공룡을 좋아해요.
공룡은 멸종되어서 더 이상 없지만
가장 멋있어요. 공룡중에서도 나는
티라노사우르스가 가장 좋아요.



보잉보잉, 이게 무슨 소리죠?
맞아요, 토끼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토끼
입니다. 토끼는 귀엽고 당근
하고 샐러드를 먹어요. 그리고
귀가 짙고 짙습니다.



나는 아기토끼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기토끼는 제일
귀여워요. 그리고 부드러워요.



나는 부엉이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해리포터에게 부엉이들이 편지를 주고
날라가는 모습이 귀여워요. 나도 집에부엉이
인형이 있어요! 내 인형이름은 스노이 에요.



난초반

교사 노정아

“엄마, 웬 마법 상자야?” 세종학교 개학식 날, 차고에서 커다란 트렁크를 가지고 나와 차에 싣고 있는 나를 본 아들의 반응이다. “어, 이거? 한글학교 수업 시간에 필요한 물품들.” 마법 상자라는 말에 괜히 웃음이 났다. ‘근데, 이게 진짜 마법 상자여서 우리 반 친구들이 한국말을 술술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는 걸.’ 행복한 상상을 하며 학교로 향했다.

“선생님은 오늘 세종학교에서 처음으로 수업하게 돼서 많이 설레고 긴장돼요. 여러분은 오늘 기분이 어때요?” “음……좋아요……음……음……” 칠판 옆에 덩그러니 놓인 트렁크를 보니 얽은 미소가 나왔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시간이 흐르고 1학기를 마무리하는 시간. “여러분 오늘 기분이 어때요?” “저는 오늘 행복해요, 신나요, 슬퍼요, 속상해요, . . . (중략) . . . 왜냐하면 여행을 가서 행복하고, 친구 생일 파티에 가서 신나고, 할머니가 집에 가서서 슬프고, 물을 안 가져와서 화나고, . . . (후략) . . .” 헉헉거리며 숨을 고르는 친구의 모습에 모두가 한바탕 웃으며 질세라 너도나도 대답하겠다고 바쁘다.

새 학기 첫날, 상상 속의 마법은 없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한글학교에 와서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고 적극적으로 따라 하고 즐겁게 놀이 활동에 참여하고 성실히 과제를 수행하는 그 꾸준함, 그게 우리 난초반 친구들이 보여준 전부다. 꾸준히 실력이 향상되고 성장하는 친구들을 보며 선생님은 진짜로 행복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세종학교 난초반 김예연

저는 크립을 작곡해요 제가 계는 크립 연습을 해서 잘 할수 있게 됐어요. 저는 크립을 크립에 기분이 좋아지고 누가 자랑스런 습관과 크립을 크립에 귀찮아도 열심히 잘 듣고 다시 크립을 노력했어요. 제 크립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느끼게끔 추구합니다.



세종학교 난초반 김지후

나는 주짓수를 좋아해요 주짓수가 멋있어서 좋아해요. 그리고, 나두 주짓수 해요.



세종학교 난초반 서아연

저는 강아지를 작곡해요 오빠하면 강아지 그림을 타미연습 했어요 이제, 늑대랑 새, 그리고 다람쥐도 잘 그려요. 다들 제가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제가 잘 그린다고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세종학교 난초반 오소당

나는 첼로를 연주 할 수 있어요. 쿼터가을 때부터 첼로 선생님에게 첼로 레슨을 받기 시작했어요. 매일 매일 연습을 해요. 연습을 안하면 후회요. 연습하기 싫어요.



세종학교 난초반 박서연

저는 수영을 잘해요. 저는 혼자 수영을 배웠어요 저는 1학년 여름부터 워터파크 수영장에서 연습을 하고 혼자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수영이 재미있어요. 물 안에서 수영을 할 때 날고 있는 거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세종학교 난초반 한채원

저는 미술을 좋아해요. 도형이나 만화기를 통해 내 감정을 표현해요. 저는 시간있을 때마다 그림을 그릴을 그렸어요. 그리고 미술 선생님을 통해서 미술과 관련된 것 잘 할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그림 그릴때 너무 좋아요.



세종학교 난초반 유가현

나는 종이접기를 잘해요 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엄마랑 같이 했어요. 종이접기는 재미있어요. 책을 보고 따라하고 유튜브를 보아서 종이접기를 잘해요 나는 친구들에게 종이접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싶어요.



세종학교 난초반 조민

저는 태권도, 만들기, 피아노, 컴퓨터를 잘해요 태권도를 잘하는 이유는 매우 원리와 복싱에 가서 태권도를 연습해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조금 부끄러워요. 만들기를 잘하는 이유는 제가 어렸을때 많이 만들기를 해서 잘하고 하고 하고 해서 시간이 있으면 만들기를 많이 해서 잘해요. 피아노를 잘하는 이유는 피아노를 3학년 정도 할때 때문이에요. 하지만 피아노도 컴퓨터도 잘하는 이유는 제가 7살때 제 컴퓨터를 받어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 아요.



무궁화반

교사 이동순

세종학교 난초반 이름: 조이연

책장이 잡기 를 잘 잡어요. 만들기도 잘 해요. 또 미식 축구도 잘 해요. 그다음에 그림 그리기도 잘 해요.

세종학교 난초반 이름: 최유우

저는 피아노를 잘칩니다. 일 주일에 두 번 배웁니다. 저는 매일매일 피아노를 연습 합니다. 저는 책을 다섯권 씩칩니다. 피아노를 칠 때 기분이 좋습니다. 피아노는 어렵습니다. 피아노를 배울 때 힘듭니다.

맑고 깨끗한 푸른빛이 하늘을 찌르고, 오렌지색의 아름다운 금빛 햇살이 온 세상을 두루마리같이 장식하는 미시간 특유의 가을을 맞이하면서 학교를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세종학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교가 시작되면서 만난 어색하고 낯설었던 얼굴, 서로 익숙지 않은 얼굴엔 호기심으로 가득한 순간순간을 소중한 추억으로 말로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학교생활을 한 편의 추억이란 장식으로 치장합니다.

한 명씩 반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웃음 짓게 하는 자랑스러운 무궁화반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학교행사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참가하는 자랑스러운 무궁화반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무궁화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한국어 실력에 크게 향상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고, 크나큰 보람을 또한 느꼈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뜨거운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소중한 자녀분의 조그마한 부분으로 허락하여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궁화반 친구들의 아름답고, 건강하고, 미래의 장랑스런 한국인으로서 자신들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세종학교 난초반 이름: 최은선

나의 특기는 미술이예요. 나는 미술을 좋아해요 미술을 하면 재밌어요. 일주일 에 한 번 선생님 과 수업 을 해요. 엄마, 과빠 선생님이 제 작품을 좋아해요.



나의꿈

무궁화상 이레나

저는 만들고 싶은 꿈의 집이 있어요. 꿈의 집의 바닥은 케이크 처럼 부드러울 거예요. 말랑말랑해서 자다가 떨어져도 아프지 않을 거예요. 침대는 큰 스쿼시 멜로우 인형으로 만들 거예요. 그 스쿼시 멜로우는 폭신



폭신해서 솜사탕 위에서 자는 느낌일 것 같아요. 지하에 갈 때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지하의 바닥은 트램펄린으로 만들 거예요.

트램펄린에서 점프하면 천장을 만질 수 있어요. 집에 있는 문은 유리로 만들어서 안을 볼 수 있어요. 문의 손잡이는 엄청 작은 스쿼시 멜로우로 만들 거예요. 제가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다 먹으면, 또 사지 않아도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열리고 싶은 것을 냉동실에 넣으면 1분도 되지 않아 열릴 거예요. 샤워할 때에는 내가 씻지 않고, 서 있으면 기계가 씻겨줄 거예요. 제가 만든 이 집에서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집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 가족의 여행

아름다운상 이은서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언니 그리고 나 4명입니다.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여행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행을 갈 때 멀어도 차로 갑니다. 우리는 플로리다, 퀘벡 그리고 옐로 스톤까지 차로 갔어요. 10



시간 넘게 차로 갈 때는, 나는 엄마와 언니와 함께 차에

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합니다. 끝말잇기, 우노 게임 그리고 스무 고개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영화도 봅니다. 그러면 긴 여행도 지루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은 다른 주를 많이 가봤어요. 아빠는 우리가 40개 주를 차로 가봤다고 했어요. 언니와 내가 제일 좋아했던 여행은 유니버설 스튜디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리 포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가장 좋아했던 여행은 옐로 스톤과 유타 주입니다. 왜냐하면 아빠와 엄마는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연휴에 디즈니월드에 갈 거예요. 우리 가족의 목표는 50개 주를 모두 여행하는 것입니다.

나의꿈

고운상 오은수

저에게는 멋진 꿈이 있어요. 저는 먼저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사업가는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해서 돈을 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번 돈을 기반으로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는 데는 돈이 필요한 이유는 선거를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선거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현재 미국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 없이 누구나 21살만 넘으면 총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많은 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어린아이들이 총을 가지고 놀다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학교에서의 총기 사고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계획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친구들과의 협동 그리고 많은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생각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을 세계

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나의꿈

예쁜상 정연우

내가 크면 일본에 가요. 거기에서 라면집에서 일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라면집에 계속 오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벌을 거예요. 일본에 친구들이랑 갈 거니까, 친구들이랑 일할 거예요. 저는 20살일 때 혼자 살 거니까 20살 아니면 21살에 일본에 갈 거예요. 저가 라면 이를 국 안에 넣고 나루토를 2개 넣고 계란도 넣어서 라면을 만들 거예요.



나의꿈

김예나

저는 김예나입니다. 저는 소셜 스테디를 좋아합니다. 파크뷰 학교를 다닙니다. 저는 커서 치과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습니다. 치과 선생님이 이를 치료하는 것이 신기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하여 치과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는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많이 좋아합니다. 펫숍 주인이 되어서 많은 강아지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것이 어렵지만 더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 연습도 잘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매일 공부와 연습을 할 것입니다.

나의꿈

이지우

나는 커서 작가가 되고 싶어요. 작가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요. 어린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동화책 글도 쓰고 싶고 더 큰 친구들이 읽을 수 있는 미스터리 소설들도 쓰고 싶어요.



나는 화가도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편하고 집중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려져도 괜찮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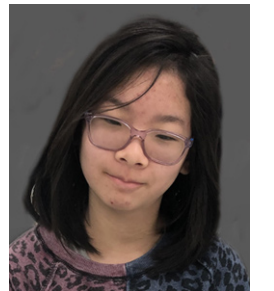
그게 예술이니까요.

나는 그냥 커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의 여행

장수진

저는 지난 주말에 뉴욕에 다녀왔어요. 카네기홀에서 피아노 연주를 했어요. 인터내셔널 뮤직(국제 음악) 대회에서 내가 1등을 했어요. 카네기홀에서 상장도 받았어요. 엄마, 아빠랑 엄청 행복했어요. 뉴욕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울프강(wolfgang) 식당에서 포터하우스 스테이크는 정말 맛있었어요. 매그놀리아 베이커리(Magnolia Bakery)에서 너무나 맛있는 바나나 푸딩도 먹었어요.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라이언킹 뮤지컬이었어요. 그리고 심바 인형과 티셔츠도 샀어요.



정말 즐거운 뉴욕 여행이었어요.



장미반

교사 윤희란

올해는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장미반 학생들과 화면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수업을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처음에는 대면 수업이 조금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과 소통을 하면서 더욱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매시간 모둠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였고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역할극과 다양한 게임들을 수업내용에 맞추어 적절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세종 글짓기 대회에서 “장미상”을 수상한 이준이는 항상 수업 분위기를 활기차게 이끌었고 세종 골든벨에서 우수한 지훈이는 수업 태도가 모범적이고 모둠 활동을 할 때마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세종 스펠링 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라엘과 최예린은 차분하고 진지한 자세로 모든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수줍은 미소가 매력적인 한예린은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에 뛰어난 소질을 보였고 밝고 쾌활한 혜나는 항상 웃는 얼굴로 친구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강이는 수줍음이 많아서 먼저 나서지는 않았지만 한국어 실력이 처음보다 많이 향상되어서 기쁩니다. 유진이와 유노, 연서는 모든 수업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학기 중간에 한국어로 돌아간 현빈이는 주어진 과제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장미반에서 함께 했던 시간들이 즐겁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기대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

장미상 김이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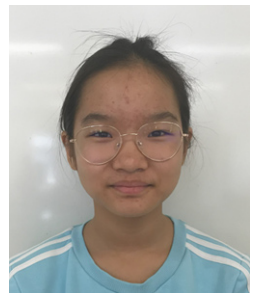
제가 제일 자신있고 좋아하는 운동은 바로 축구입니다. 대한민국의 축구는 1902년 이후 오랜 기간동안 공식적인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고 지금은 제일 인기가 많은 스포츠중의 하나입니다. 2022년 겨울 월드컵 시즌이 시작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축구를 응원하며 경기를 즐길 생각에 저는 벌써 설레입니다. 저는 축구 선수가 꿈이어서 축구를 왜 좋아하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번째 이유는 축구를 할 때 많은 장비들이 필요하지 않고 정강이 보호대(신가드), 축구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축구공이 필요합니다. 많은 돈이 필요 없으니 축구를 한 번 시작해 보세요. 두번째 이유는 제가 축구 경기를 할 때 느끼는 기쁨과 같은 팀 선수들과 공유하는 스포츠맨십 때문입니다. 축구를 할 때 같은 팀 선수들과 패스를 주고 받아서 골을 성공시키면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 글을 읽어 본 다음에 꼭 축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축구를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밖에 나가서 축구공을 발로 한번 뽕 차보세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축구를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생활의 변화와 느낀 점

아름다운상 최예린



매일 뉴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방송되었다. 이렇게 무서운 바이러스는 내 생활을 180도 바꿔게 했다. 내가 다니는 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들어야 했고 친구들과 뛰어 놀 수도 없었다. 건조하고 딱딱 있는 아이스 스케이트장도 다닐 수가 없었다. 내 머리 속에는 운동 할 수 없는 것들로 불평인 날이 많았다.

그러던 나는 4학년이 되었고 르클레어 선생님을 만났다. 이 선생님과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내 불만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뀐 일이 있었다. 첫번째는 탈렌트 쇼를 한 날이다. 나는 첼로를 연주하려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내 귓가에는 ‘자, 오늘 못한 학생들은 다음 시간에 하자’ 라는 말이 땀독았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온라인 수업이니깐 시간 되는 학생들은 계속 참여할 수 있어요” 라고 하셨다. 학교였다면 못했을텐데 첼로를 연주할 수 있어서 기뻐다.

두번째는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점심 시간동안 만나서 학교 소식을 전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자고 하신 일이다. 나는 엄마의 허락을 받아서 참여하였는데 우리가 만든 동영상이 온라인 스쿨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게 보내진 멋진 경험을 하였다.

코로나 사태는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무서운 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걱정하고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르클레어 선생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뀔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생활의 변화와 느낀 점

고운상 이라엘

2019년 겨울부터 코로나가 퍼졌어요. 마트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고 회사에 나가던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했어요. 문을 닫는 식당들이 생기고 사람들은 점점 밖으로 안나갔어요. 저도 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못하고 집에서 공부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좋은 점은 가족들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고 아빠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매일 아침에 아빠를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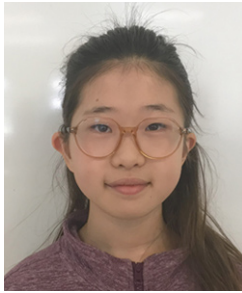
2021년에는 다시 학교를 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스크를 해야 돼서 답답했어요. 겨울에는 입김때문에 마스크 안이 축축해지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체육시간에는 더 숨이 차서 가끔씩 마스크를 빼야 했어요.

2022년에 저도 코로나에 걸렸어요. 목이 아프고 머리에 열이 났어요. 저의 가족, 엄마, 아빠, 동생 모두 다 걸려서 아팠어요.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면 좋겠어요. 우리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어요. 화이팅!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생활의 변화와 느낀 점

예쁜상 이강

팬데믹 상황 속에서의 삶은 내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무엇이었다. 새로운 일이었고 이상한 기분이었다. 나는 그 삶을 즐기지 못했다. 상점을 갈 때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했다. 나는 전에는 한 번도 마스크를 써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느낌이 정말 달랐다. 만약 아



프게 되면 집에서 격리를 해야 했다. 그러면 나는 혼자 여야 했고 그것은 아주 지루한 일이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었고 오직 컴퓨터를 통해서만 대화가 가능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힘들고 지루한 시간들을 안겨 주었다. 그 시간들은 전에 내가 살았던 삶과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어쩌면 코로나는 저주인 동시에 축복인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었다. 또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보여 줬다. 하지만 그 시간들은 내 친구들을 볼 수 없게 만들었고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제한이 있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인생에 흥미로운 사건이었고 지금은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정말 기쁘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생활의 변화와 느낀 점

예쁜상 김연서

제가 느끼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가장 큰 변화는 마스크와 온라인 수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수업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없다는 서운함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지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즐겁기도 했습니다.

다시 학교에 돌아갔을 때, 처음에는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이 무척 어색했습니다. 코로나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마스크를 항상 쓰지는 않고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얼마 전에 5학년 캠핑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학교에 다니는 즐거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같은 병의 무서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백신이 큰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도 배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의 소중함도 배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로 아프거나 죽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코로나가 없어지길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생활의 변화와 느낀 점

김유진

우리는 지난 3년동안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생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좋은 변화도 있고 팬데믹 이전의 생활이 그리운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첫째, 마스크를 쓰는 게 익숙해졌어요. 예전에는 마스크를 전혀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쓰고 오랜 시간 쓰고 있어도 많이 불편하지 않아요.

둘째, 사람들과 함께 하는 모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대신에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많은 추억거리가 생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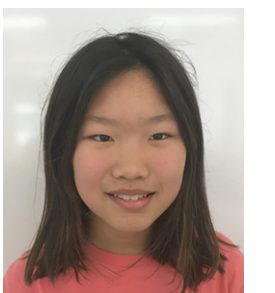
셋째, 손을 자주 씻고 소독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집에 오면 손부터 씻고 마트에 가면 손잡이부터 닦아요. 넷째, 온라인 사용이 많아졌어요. 온라인 수업도 받고 장도 보고 음식 배달도 시키고 아빠는 회의도 해요. 시간도 아낄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겼고 우리는 변화에 잘 적응하면서 건강하게 열심히 생활할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생활의 변화와 느낀 점

김혜나

코로나는 나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첫번째 변화는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했어요. 나는 온라인 수업을 듣는게 싫었어요. 온라인 수업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없어서 슬펐어요. 두번째 변화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정말 불편했어요. 세번째 변화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졌어요. 코로나때문에 학교, 상점, 운동장이 문을 다 닫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아주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계속 견뎌야 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서유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예요. 저는 떡볶이가 맵고 달콤해요. 저는 떡이 매콤하면서 달달하면서 쫄쫄해서 맛있고 먹을때 재밌어요. 저는 떡볶이에 들어간 어묵이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서 떡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서 좋아해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이 떡볶이예요. 그래서 엄마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으로 떡볶이를 준비해 주시면 저는 너무 신나고 기분이 좋답니다. 그래서 저는 먹으면서 엄마에게 “너무 맛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맛있게 떡볶이를 먹고 힘을내서 숙제를 해요. 저는 떡볶이를 매일 먹고싶어요. 떡볶이야, 내일도 만나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

양지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고양이를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저는 위리어스라는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을 읽고 처음으로 고양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반려동물로서 오랫동안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과거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마녀사냥과 흑사병으로 많은 고양이들이 미움을 받고 죽었지만 나중에 고양이가 쥐를 잡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오해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학교 수업시간 발표 주제로 고양이에 대해 알아보던 중 저는 많은 과학자들이 고양이에 대해 연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양이의 울음소리와 부드러운 털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낮춰 준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알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주인의 감정을 읽는 교감능력도 뛰어나서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고 엄마, 아빠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꼭 고양이를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생활의 변화와 느낀 점

한예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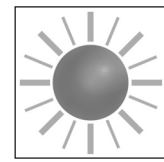
코로나는 우리의 생활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상점들도 문을 닫아야 했고 사람들은 쇼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만나러 가기 위해 비행기 표나 기차표를 샀던 사람들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점들이 문을 열고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과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코로나때문에 집에 있어야 할 때에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아침 일찍 샤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좋았습니다. 파자마를 입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줌으로 수업을 듣는 것도 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컴퓨터 연결 상태에 자꾸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생님 말씀도 잘 안들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나는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플레이 그라운드에서 놀고 싶어졌습니다. 이제는 학교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도 너무나 슬픉니다.



해반

교사 김미경

지난가를 교실에서 해반 학생들을 처음 만난 날이 생각납니다. 총명한 눈빛이, 조금은 어색한 기운이 오랜만에 교단에선 저는 그 느낌이 참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자신만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첫눈에 속 들어왔습니다. 이들과 만들어 갈 한 해는 얼마나 재밌을까 기대가 됐습니다. 추억의 사진첩을 넘겨보니 그때 그 느낌, 그 감정이 생생합니다. 사진 속의 재인이의 미소는 언제나 환합니다. 같이 있으면 막 행복해집니다. 우리 다연, 나연이가 학급 분위기를 이끄는 모습은 항상 사진 밖에 있지만 그때의 반짝이는 눈빛, 재치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둘이 박자가 적절 맞아요. 매력 넘쳐요. 지수는 수업 시간 내내 진지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는지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고맙고 참 기특합니다. 학교 행사에 참여하자고 하면 “안 하면 안 돼요?” 꼭 묻지만 결국은 다 하고 친구들이 가진 문제 바로 해결해 주는 우리 반 해결사, 윤호는 멋진 남자예요. 우리 준우는 질문을 잘 해요. 간혹 그 질문은 해 반을 진지한 토론의 장으로 이끌기도 해요. 준우는 그의 소원인 한국어로 말을 잘 하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주현이는 체험 활동을 진짜 좋아해요. 역사 유물 모형 만들기, 음식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할 때 주현이는 그 속에 폭 빠져 있어요. 집념이 대단해요. 저는 그 모습이 참 좋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민혁이는 개인 사정으로 3교시가 시작될 때 등교를 하는데 한 번도 결석을 안 해요. 오는 것만 해도 기특한데 글쓰기 대회, 골든벨 대회 등 학교 행사에 모두 참여해요. 너무 예쁘고 기특해요.

한국어 교사로서 첫해를 사랑스러운 여덟 제자들과 보내며 가르치면서도 배우는 기쁨을 선사한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고 적극적으로 도움 주신 부모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이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키워가는 꿈을 지지하며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성취해 가는 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보겠습니다. 해반 친구들~~ 선생님이 많이 사랑한다!!



나의 장래 희망

해상 오지수

나의 장래 희망은 공상 문학 작가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글을 쓰는 것도 좋아한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읽는데 여러 종류의 책들 중에서 특히 공상 문학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어릴 때부터 글을 쓰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다. 책을 읽고 나의 상상력을 더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글을 써 보기도 했다. 내가 쓴 일을 읽을 때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글을 쓰는, 특히 공상 문학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을 키워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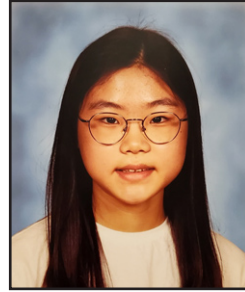


5학년 때 학교 담임 선생님 성함은 Ms. Kiesel이다.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작가가 될 수 있는지 많은 조언과 구체적인 도움을 주셨다. Ms. Kiesel 선생님께서는 내가 글을 정말 잘 쓴다고 늘 칭찬과 격려를 해주셨다. 나는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정말 좋았다. 선생님께서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진 나와 Sofia에게 글을 쓰는 훈련을 시켜 주셨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지금 생각해 보니 5학년 때 글쓰기 실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 내가 읽은 책에 나오는 사람들의 성격이 모두들 독특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이 너무 재미있어서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책을 계속 읽게 되었다. 책을 읽고 있으면, 그 시간에는 수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고, 바이올린 연습을 하지 않아도 돼서 좋기도 했다. 또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가는 것이 나는 너무 좋다. 내가 공상 문학 책들을 읽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내가 지은 책들로 인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나처럼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

나의 꿈

아름다운상 박나연

나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다.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사람들을 돕고 싶기 때문이다. 사람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가장 외롭다고 말한다.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환자들이 아프지 않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의사가 한 사람을 도울 때 한 사람의 가족과 친구들이 매우 감사하고 행복할 것이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쉬는 시간에 혼자서 명키 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팔이 너무 아팠다. 팔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였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팔이 너무 아프고 움직이지 않았다. 놀란 엄마가 어린이 병원 응급실에 데리고 가셨다. 의사가 나를 보러 와서 내 팔을 비틀었고 “딱” 소리가 나자 팔이 편해졌다.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는 “신의 손” 영화를 보았고 그것은 닥터 벤 카슨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는 어렸을 때 TV만 보고 공부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열심히 공부하여 의사가 되었다.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은 삼쌍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니 의사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의사가 되기 위해 더 많은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의사가 되기 위해 더 많은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하겠다. 책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사람들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나는 그들을 돕고 싶다.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나의 꿈

고운상 김재인

나의 꿈은 화가가 되는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연습을 계속했더니, 나의 그림 실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내 꿈은 화가가 되는 것이지만, 내가 비전이 없었으면 나의 그림 실력은 다섯 살 아이와 같았을 것이다. 내가 미래에도 화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지금도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다.



요즘에는 물감을 칠하고, 조각상을 만드는 것도 해보고 있다. 내가 화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이것이다. 화가들은 충분한 창의력이 필요한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창의력이 풍부했다. 내 생각으로는, 경험이 많을수록 미술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화가가 되지 못한다면 충분히 연습해서 취미로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화가들은 피카소와 고흐다. 피카소는 흔하지 않은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는데, 주로 사람들을 많이 그린다. 또, 아주 유명한 화가 한 명은 고흐다. 고흐는 유명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다. 그중 하나는 해바라기다. 해바라기는 제목같이 여러 송이의 해바라기 그림이다. 요즘에는 눈을 그리는 것에 푹 빠졌다. 사람들의 눈을 그리는 것을 가장 좋아하지만, 고양이나 강아지의 눈을 그리는 것도 좋아한다. 나는 그림을 그리면 평온 해진다.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희망을 느끼거나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나중에 화가가 되면 명예의 전당에 나의 그림이 걸렸으면 좋겠다. 내가 큰 캔버스에 그린 그림을 사람들이 보며 나의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나의 꿈

고운상 박다연

나의 꿈은 수의사가 되는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좋아해서 수의사가 되고 싶었다. 또 다른 이유는 동물들이 다치거나 아프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의사가 되어 동물들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수의사는 동물을 돕고 의사는 사람을 돕는다. 나는 수의사가 의사만큼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동물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친구가 되어준다. 개들은 푹푹해서 훈련을 받으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안내해 준다. 또 공항에서 마약 같은 나쁜 물건들을 찾을 수도 있다. 동물은 친구처럼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준다. 내가 수의사가 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동물도 사람처럼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학교에서 사람을 더 오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동물실험을 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테스트 중에 동물이 죽을 수도 있다. 테스트당한 동물이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다치거나 병든 동물을 돕고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수의사가 되기 위해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하고 싶다. 봉사를 하면서 동물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사람들의 생명이 중요한 만큼 동물들의 생명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수의사가 되고 싶다.

나의 꿈

예쁜상 이준우

나의 꿈은 한국어로 말을 잘 하는 것이다. 나는 한글을 읽을 때 모르는 글자도 많다. 한국어로 말할 때는 “어어어...”를 많이 한다. 한글을 쓸 때도 받침 같은 거, 많이 틀린다.



지난여름에 한국에 갔다. 엄마 친구네 가족과 며칠을 함께 보냈다. 그 가족은 아이가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의 이름이 동건이다. 동건이는 나보다 한 살 어리다. 그런데 나는 한국어를 잘 못하고 동건이는 영어를 잘 못했다. 그래서 서로 정말 답답했다. 내가 한국어를 더 잘 했으면 좀 더 재미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경험이 이것 말고도 많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국이라고 생각해서 나에게 한국말을 막 쓴다. 그렇지만 나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른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의 꿈은 한국어를 바르게 쓰고 말을 잘 하는 것이다.

나의 꿈

이주현

나는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다.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의사가 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벌면 돈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선생님이 약도 주고 빨리 나올 수 있게 도움을 주셨다. 주사도 맞았다. 조금 무서웠다. 하지만 의사선생님 덕분에 아프지 않았다. 감사했다. 선생님의 흰 가운도 멋있었다. 나중에 커서 내가 의사가 되면 행복할 것 같다



나의 꿈

정윤호

나의 꿈은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다. 다섯 살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다. 축구를 할 때 멋지게 수비를 하고 골을 넣으면 행복하다.

나는 매주 화요일에 축구 클래스에서 연습하고 있다. 3학년 때 한 경기에서 혼자 9골을 넣어서 경기에서 이긴 적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축구를 더 잘하고 싶어서 축구 골대를 사서 뒷마당에서 동생이랑 연습하고 있다.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기도 한다. 내 친구들도 축구를 좋아해서 같이 하면 더 재미있다.



나는 제법 달리기가 빠르고 발 기술이 좋아서 골을 많이 넣지만 수비할 때가 더 좋다. 수비수는 빠른 달리기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잘 맞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수비수는 파리 PSG 팀의 세르지오 라모스이다. 이 선수는 그 팀에서 제일 수비를 잘한다. 나도 이런 선수가 되고 싶다.

나의 꿈

한민혁

저는 커서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바이올린을 더 잘하기 위해서 유명한 연주자의 연주도 봅니다.



유튜버가 만들 수 있는 장르 중 하나는 게임 동영상입니다. 이 장르는 제가 가장 많이 보고 좋아하는 유튜브입니다. 이 유튜브 비디오는 다양한 종류의 비디오 게임에 대해 보여줍니다. 저는 비디오 게임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서 동영상도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에 대한 비디오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 로블록스 게임은 다른 행성으로 여행하고 그곳을 통해 모험을 떠나는 것입니다. 플레이어는 몬스터와 싸우고 그들과 함께 행성에 도착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집안일을 함으로써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저의 유튜버 꿈을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게임 동영상을 통해 더 많은 인기를 얻고 더 많은 조회 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장르는 브이로그(Vlog)입니다. 브이로그는 비디오 블로그로, 이것은 현재 내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동감 있게 보여줍니다. 저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고 키우고 싶습니다. 우리 엄마는 강아지를 무서워해서 지금 강아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크면 강아지와 함께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유튜버는 동영상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도 하고 도움을 주는 일도 합니다. 제가 유튜버가 된다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솔반

교사 오승용

세종 학교에서 2022-2023년도는 유난히 감사한 해였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다가 학생들과 다시 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 홍일점이었던 김성원 학생
- 침착하면서 성실함으로 수업에 참석해 주었던 김이안 학생
- 밝은 웃음으로 수업에 참석해 주었던 박재연 학생
- 명쾌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수업에 참석해 주었던 최성민 학생

2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학생들이 솔반 수업에 참석을 했습니다.
신입반에서 솔반 수업에 참석하며 늘 장난끼 가득함으로 수업에 참석해 주었던 김준 학생
한국에서 막 이사를 와서 한국의 신선한 언어와 문화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방서준 학생

8학년, 6학년, 3학년 아이들의 부모로 7학년 학생들이 토요일 세종학교에 와서 한글과 우리의 문화를 배운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2022-2023년 솔반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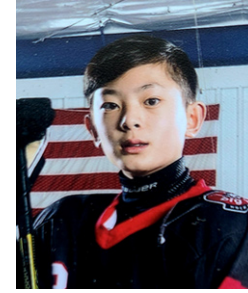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

솔상 박재연

사람을 반으로 나누거나 공중에 뜨게 하는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이 바로 마술이다. 나는 작년에 유튜브에서 이런 마술을 처음 보았다. 나는 깜짝 놀랐고, 마술사들이 보여주는 마술들은 신기하고 멋있었다. 나도 이런 마술을 할 수 있는 마술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마술에 관심이 생기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카드 마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 아빠, 엄마 그리고 동생들에게 연습한 마술을 보여 줬을 때, 나의 마술이 서툴러서 아무도 신기해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많이 연습했고, 이제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마술을 보여줄 때마다 깜짝 놀란다. 카드 마술을 배우고 난 뒤, 연필과 동전을 이용한 마술도 연습하고 있다. 요즘 내가 배우고 싶은 마술은 불을 사용하는 마술이다. 불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좋아하는 마술사들은 Dan Rhodes와 David Blaine이다. 나는 Dan이 America's Got Talent라는 프로그램에서 몸을 반으로 자르는 마술을 보고 좋아하게 되었다. Dan이 보여준 마술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마술이어서 굉장히 쇼킹했다. 특히 David는 백악관에서 공연을 보여줄 정도로 유명하다. 나도 이런 마술사가 되어서 신기한 마술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하고, 마술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된다. 마술은 같은 동작을 여러 번 연습해서 완벽하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굉장히 떨리는 일이다.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완벽한 준비와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보여준 마술이 아닌 나의 아이디어로 만든 새로운 마술 공연을 보여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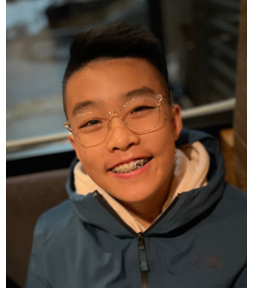
장래희망

손흥민 선수를 닮은 축구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상 김이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러다가 유치원 때 시작한 축구를 중학생이 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축구에 관심이 생기고 나서부터 자연스럽게 메시, 호날두, 네이마르, 손흥민 등 유명한 축구 선수들 동경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대한민국 출신 손흥민 선수에 의해 많은 영감을 받았고 그 선수를 닮은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손흥민 자서전을 읽고 나서 손흥민 선수를 존경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입니다.

첫번째, 손흥민 선수의 강한 정신력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존경합니다. 저는 경기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두번째, 손흥민 선수는 상대팀 선수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단순히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아닌, 프리미어리그를 이끄는 선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축구팀에서 팀을 진심으로 리드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세번째, 손흥민은 심판의 결정을 존중하고 불평하지 않고 게임을 묵묵하게 이어 나갑니다.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어도 잘 참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그저 멋있고 화려한 선수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땀, 노력, 시간, 눈물, 부상 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이러한 여러 이유들 때문에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인 저는 대한민국 축구 선수인 손흥민을 닮아 놀라운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멋진 인성을 가진 축구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나의 장래 희망

고운상 최성민

저는 아직 생각한 장래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좋은 집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요즘은 Elon Musk와 Bill Gates 같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니다. 두 분 다 사업가이고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들이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가 만든 것들을 사용합니다. 저도 회사를 만들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회사를 만드는 것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똑똑해야 하고 꾸준히 영업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스포츠 선수도 많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우승을 한 번만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저는 테니스와 축구를 좋아하니까 연습해서 선수가 될 수도 있지만 이미 저보다 일찍 시작한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수가 되는 것은 어렵고 한 번이라도 부상을 당하면 다시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의사는 훌륭한 직업입니다. 저희 엄마가 저에게 의사를 추천해 주셨었지만 저는 징그러운 걸 잘 못 보고 무서워합니다. 또한 의사가 되려면 학교에 오랫동안 다녀야 합니다. 의사 직업에 관련된 용어를 다 알아야 하고 상황에 맞는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고 좋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강제로 안 좋아하는 직업을 갖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나중의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꼭 저에게 맞는 직업을 골라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나의 장래 희망

방서준

최근까지도 나는 내 장래희망이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었지만, 최근에서야 나의 꿈이 생겼다. 바로 “모의 해킹 전문가”이다. 모의 해킹 전문가란, 원래는 불법인 해킹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을뿐더러, 돈도 벌고 요즘에는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나와 떠오르고 있는 직업이다. 모의 해킹 전문가가 하는 일은 기업이나 개인의 웹이나 앱을 해킹에 도전해 만일 성공하면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난 뒤 돈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모의 해킹 전문가가 되는 길은 매우 쉽지 않다. 우선 컴퓨터에 대한 기초지식 네트워크에 관한 지식에 대해 배우고, 그다음엔 c언어, c++, 파이썬, Java, 리눅스, 칼리 리눅스 등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취약점을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만들 수준이 되면 이제는 취직을 하면 된다. 모의 해킹 전문가가 좋은 이유는 지위에 상관없이 오직 성과로 연봉이 나뉜다. 물론 매우 힘든 길이고 포기하게 될 수도 있지만, 하는데까지는 도전해 보려고 한다.



달반

교사 배덕열

아직 꿈을 찾지 못했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현재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제 주위에는 하고 싶거나 되고 싶은 꿈이 없어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고민하는 친구들보다 당장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더 조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벌써 꿈 또는 목표를 정해서 달리고 있는데 나는 달리는 커녕 목표를 정하지도 못해 뒤쳐졌다 혹은 늦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없어서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잘하는 일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은 현재의 생활에서도 진행형입니다.

스스로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꾸준히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의 고민은 늦은 것이 아니라, 제 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루고 싶은 꿈이 없다고 해서 남보다 뒤쳐졌다거나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일은 살면서 언제든지 생길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꿈이나 목표가 있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다양한 상황에 처하게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소중한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진정한 꿈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과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모두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나는 토끼로 태어나리라

달상 신현우

이다음에 나는 귀가 큰 토끼로 태어나리라.
 귀엽고 똑똑한 하얀 토끼로 태어나리라.
 깡충깡충 뛰고 놀리라.
 사과처럼 빨간 눈 있으리라.
 자유와 뛰어보고, 맛이 있는 먹는 토끼.
 피가 많고, 지혜로운 토끼,
 위험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항상 빠져나가 방법을 찾는 토끼, 되리라.
 폴짝폴짝 뛰어 즐지 않고, 이번에는 거북이에게 안 지는 토끼가 되리라.



나는 강아지로 태어나리라

김하원

나는 강아지로 태어나리라
 내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리라
 배가 고플 때에는 윙윙윙
 공놀이를 할 때는 왈왈왈
 초인종이 울릴 때에는 월월월
 너무 기쁠 때에는 히히히
 옆집 개를 만날 때에는 깡깡깡
 산책할 때에는 킁킁킁
 목욕할 때에는 흥흥흥
 깊은 잠을 잘 때에는 품품품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강아지로 태어나리라



코카 콜라가 아니라, 코알라!

오지효

많이 자는 코알라가 태어나다.
 쿨쿨, 나무에 눕고,
 게으르게 아니라
 많이 쉬는 거지.
 회색,
 작은 몸, 큰 머리와 귀엽지만,
 사랑을 잘 모른다...
 그냥...밥...
 일어날 때 먹고,
 잘때도 나뭇잎을 먹는
 꿈을 꾸다.



나는 북극곰으로 태어나리라

아름다운상 박연서

흰 깃털처럼 부드러운 털을 덮은 북극곰이 되고 싶다.
 따뜻한 털이 북극곰의 방패가 돼준다.
 엉금엉금 눈 위를 밟고 다니는 곰이 되고 싶다.
 매일이 워터 랜드에서 노는 것 같다.
 끝이 없는 깊은 바닷속 또 자유롭게 헤쳐나가고 싶다.
 돌처럼 압전히 있는 북극곰은 먹이 앞에서 사나워진다.
 얼음구멍으로 소심하게 다가오는 물개.
 숨을 쉬기 위해 올라온 물개는 순식간에 잡혔다.
 북극곰의 날카로운 이빨로 먹이를 갈기갈기 찢어놓다.



나는 나비로 태어나리라

서유빈

이다음에 나는 나비로 태어나리라.
 알록달록한 큰 날개를 푸드덕 푸드덕 날갯짓이 멀리에서도 들려요.
 아름답고 화려한 날개를 가지고 있는 나비로 태어나리라~
 추운 계절이 지나 멀리 날아가고 봄이 오며 다시 파닥파닥 하는 음악소리가 들린다
 꽃 위에 섰어 앉아있고 봄의 따뜻한 바람을 맞으면서 자유롭게 큰 세상 밖으로 멀리멀리 날아가리라~



살금 살금, 천천히
 손으로 나뭇잎...잡았다!
 씹어 먹으면서...아~
 잠이 든다.
 행복하지만 힘들어서
 또 잔다.





제목 : 별반에게

안녕 애들아 김은하 선생님이야, 벌써 함께한 1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여름이 찾아왔네. 너희들은 지난 1년이 어땠어? 다들 시험공부하라, 운동하라, 악기 연습하라 정신없는 1년을 보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런 바쁜 일상 속에서 토요일은 쉬고 싶었을 텐데도 다들 한글 공부하러 나오는 모습들이 멋지더라.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정신없는 1년을 보냈어. 작년 5월에 처음 미시건에 넘어와 첫 자취, 첫 직장,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 와본 미시건, 첫 한글학교 선생님 등등 적응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 사실 한글학교 선생님은 내 인생에 무모한 도전이었어. 첫 직장에 적응하지도 못했으면서 토요일에도 Second Job을 해보겠다고 나 선거니까 ㅎㅎ 지난 1년 동안의 토요일을 돌아보자면 잠이 부족해서 아침에 피곤해하며 오기도 하고,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눈물을 참고 오기도 하고, 회사에서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풀리지 않는 고민을 하며 오기도 했어 그렇게 토요일 아침마다 힘든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막상 너희들 앞에 서면 힘이 나고 웃음도 나더라.

우리 다 같이 각자 꿈이 뭔지를 설명하던 시간이 있었잖아. 선생님은 너네 나이 때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었는데, 너네는 스스로 뭘 좋아하는지를 알더라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할 때가 오겠지만, 그래도 너희가 좋아하는 것을 더 열렬히 좋아하는 일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

잘 따라와 줘서 고맙고, 수업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 토요일의 활력소가 되어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못 보더라도 좋은 일 있으면 얘기해 주고, 고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도 돼! :) 각자의 자리에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자. 파이팅!



다음 생일의 계획이나 생일 때 하고 싶었던 일

별상 윤수은

예전에 저에게 생일에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다면 아마도 친구들과 생일파티를 하고 최신 장난감을 갖고 싶다고 했을 거예요. 저는 장난감과 인형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4학년 때 몸이 많이 아파지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저처럼 아픈 아이들이 있고 저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장난감을 거의 일회용처럼 쓰고 한번 논 다음에 그냥 모아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일 선물로 갖고 싶은 것을 물어봤을 때 대답을 뭐라고 할지 몰랐어요. 며칠 후 친구 생일파티에 갔는데 한 친구가 불만을 얘기했어요. 자기 부모님은 생일 선물 대신 자기 이름으로 기부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어리둥절하면서 물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제 친구는 오해하고 “내 말이!”라고 하면서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진지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기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 했거든요. 집에 가서 엄마를 통해 아픈 아이들을 위한 자선 단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해부터 저는 제 생일 돈을 모아 세인트 주드 어린이 병원에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생일에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받는 게 더 기뻐했는데 기부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더 기뻐어요. 그리고 엄마가 제가 오랫동안 아팠을 때 절 위해 힘들게 간호하고 돌보아 주어서 엄마에게 감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제 생일에 엄마께 아침식사를 준비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다음 생일의 계획이나 생일 때 하고 싶었던 일

아름다운상 김세희

저는 2007년 10월 6일 청주에서 태어났어요. 올해 나이는 15살이지만 내년에는 16살이 될 거예요. 한국에서는 16살 생일 되어도 특별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16살 생일이 크게 기념되며 Sweet 16이라고 불립니다. 그날에는 부모님과 친지분들이 성인이 되는 것을 축하해 주는 큰 파티를 열어주고, 저는 DJ, 화장, 가운 및 멋진 드레스를 입고 그날 파티의 주인공 됩니다. 저의 Sweet 16 파티는 한국식으로 하고 싶어요. 한 곳에서 파티를 하는 것 말고, 다른 방식의 축하를 하고 싶어요.

미국에서는 16살이 되면, 법을 따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간을 완료하고 운전이 필요한 모든 시간을 완료하면 개인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날은 운전면허를 따러 가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 아빠가 저한테 차를 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에 아빠가 저한테 차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하고 자동차는 제가 얼마나 자라서 독립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지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우여곡절을 거치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잘 자랐다는 것을 말하죠. 부모님 없이 제가 홀로 어딘가를 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성인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제 생일이 금요일이에요. 그 금요일 밤엔 저의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파티를 하거나, 제가 좋아하는 활동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고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모든 곳에서 저를 지원해 주신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신 은혜를 결코 갚을 수 없지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주말에는 가장 친한 친구들과 파티를 하고 싶어요. 저는 99% 백인 학교의 유일한 한국인이예요. 멋지게 차려입고 한식당에 친구들과 같이 가서 친구들과 웃으며 영원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국에서 할머니가 해 주시던 음식을 먹거나,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엄마가 해 주시던 한식을 먹던 추억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파티 버스를 빌려서 새벽까지 신나게 놀면서 친구들과 결속을 다지며 성인과 독립의 첫 맛을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다음날 저랑 가장 친한 친구들 몇 명을 데리고 온종일 스파를 즐기고 싶어요. 그리고 손톱 다듬기 및 마사지 받기 등을 받으며 친구들과 함께 온종일 수다를 떨면서 전 날의 모든 피로를 날려버리며 나의 Sweet 16 꿈의 파티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소망하는 Sweet 16 계획을 모두 다 하지 못하더라도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절대 값을 수 없는 선물이에요.

다음 생일의 계획이나 생일 때 하고 싶었던 일

고운상 윤지환

제 글을 조금 천천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생일에는 무엇을 할까요? 유명한 식당을 갈까요? 여행을 갈까요? 저는 어느 곳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한 가지만 필요해요. 어렸을 때는 항상 큰 생일파티를 원했어요. 친구들과 마음껏 놀고 학교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좋았어요. 좀 더 크면서는 친구들과 슬립오버를 원했어요. 게임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는 너무 즐거운 시



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간에 빠진 것이 있었어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았어요. (가족과는 간단히 식사하고, 선물 받고). 그렇지만 이제는 대학을 가서 집을 떠나기 전까지 2년 밖에 안 남았어요. 친구들과도 중요하지만 가족들과의 시간도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Greek에 한 단어가 있어요. Agape의 의미는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가족들은 항상 아가페 사랑을 주어요. 항상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과 나를 외롭지 않게 옆에 있어준 누나. 생일에는 같이 식사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저는 그 시간을 특별히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제 생일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말고 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서 기억에 꼭 남는 생일을 보낼 거예요.

다음 생일의 계획이나 생일 때 하고 싶었던 일

예쁜상 하준형

저는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일에 대한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꼭 제 친구들 초대해서 생일을 지내고 싶습니다. 저는 4학년 때 미국 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모든 게 신기하기도 했지만, 친구가 아무도 없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년 아빠의 회사 동료들, 아니면 부모님과 생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친구를 사귀려 노력했지만 처음에는 제 소심한 성격과 영어 문제로 친구를 못 사귀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속상하기도 하고 자존감도 떨어졌지만, 끝내 노력을 해서 제 영어 실력과 자존심이 많이 올랐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면서 언젠간 생일파티를 해야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다음에 생일이 오면 그땐 친구들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것은 노래입니다. 저는 콘서트, 노래, 가수를

많이 좋아합니다. 때로는 노래가 저를 위로도 해주기 때문입니다. 콘서트에는 못 가지만 생일 때 노래를 틀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문화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취미생활로 한국 영화, 드라마 등등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한국에서 무엇이 유명한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요즘 한국에서 유명한 것들이 많이 들어간 생일파티를 열고 싶습니다.

내년 생일에는 많은 것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 못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내년 생일이 이번처럼 똑 같더라도 그냥 부모님께 감사하며 지낼 것입니다.

다음 생일의 계획이나 생일 때 하고 싶었던 일

강술대해

내가 생일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는데, 생일에는 아주 특별히 거창한 일을 하기보다는 평범하게 남들처럼 보내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상영한다면 친구들과 영화관에 가서 팝콘을 먹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영화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를 상영하지 않는다면, 에스케이프 룸에 가서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친구들이랑 우리 집에 모여 게임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덥다면 친구들과 어딘가에 가기보다는 그냥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이야기를 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한국 음식을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탕수육과 자장면과 같은 중화요리를 좋아합니다. 아니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음식이나 베트남 음식과 같은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



람들은 생일 케이크를 먹으나, 나는 티라미수를 더 좋아합니다. 생일은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생일의 계획이나 생일 때 하고 싶었던 일

김 단

저는 다음 생일에 밤하늘에서 별들 보고 싶어요. 저는 옛날에 부터 생일 때 뭐 크게 파티 같은 것을 못했어요. 요즘 때도 COVID 때문에 못하고 어차피 파티도 별론데, 꼭 해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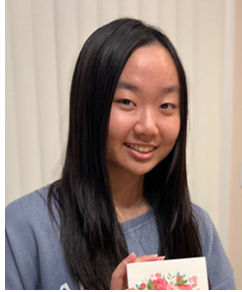


제 생일 때는 그냥 촛불 켜고, 소원 만들고, 케이크 먹고 끝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저 뭐 특별한 것을 하고 싶어요. 어두운 밤 하늘에 제일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모든 아름다운 별들 보고 싶어요. 온 우주에서 제 생일 때만 별들이 나오는 생각이 너무 기뻐요. 그것밖에는 더 필요가 없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것도 충분해요. 온 세상에서는 제 친구들이 제일 소중한데요. 아무리 비싼 선물 갖다 줘도 전 다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제 생일은 별로 특별하게 소중한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축하해 줄 때 많이 기뻐해요. 근데, 왜 별을 말하다가 친구 말할까요? 그게 좀 이상하죠? 그 이유를 지금 말해줄게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80억이나 넘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에서 제 친구들이 절 찾아와서 생일 때 축하해 줘요. 우주에서도 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생일 때 제 친구들이 절 찾아온 것처럼, 우주에서 별 하나라도 절 찾으러 오면 저는 너무 행복할 거예요.

**다음 생일의 계획이나
생일 때 하고 싶었던 일**

김예원

내 열여섯번째 생일, Sweet 16



이번 제 생일에 저는 열여섯 살이 됩니다. 미국에서 열여섯 살 생일은 특별하게 축하하는 sweet 16입니다. 작년 제 생일은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보냈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케이크도 자르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불렀지만 열여섯 살 생일은 조금 다르게 보내고 싶습니다. 제 열여섯 살 생일에는 오전에는 친구들과,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Somerset이나 Twelve Oaks 같은 쇼핑몰에서 친구들과 만나 옷과 액세서리를 사러 쇼핑을 가고 싶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버블티 같은 맛있는 음료수를 사 먹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친구들과 저는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들으며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열여섯 살이 되면 혼자 운전을 하고 싶어서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지금 열심히 50시간 운전연습을 하는 중입니다. 친구들과 헤어지고 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스키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스키장에 가고 싶습니다. 평소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가득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처 가게에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맛은 녹차와 초콜릿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는 숫자 16이 크게 쓰여 있는 양초가 있는 케이크로 집에서 파티를 하고 싶습니다. 케이크는 고구마 케이크였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 동생들과 강아지 엘리와 함께 고구마 케이크 앞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사진을 찍을 것입니다. 맛있는 케이크를 먹으며 동생들과 친구들이 주는 선물도 꺼내볼 것입니다. 그리고 제 sweet 16, 열여섯 살 생일의 즐거운 추억을 나누면서 생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생일의 계획이나
생일 때 하고 싶었던 일**

김이안

저의 생일 때 집에 있고 싶어요. 집에서 밥 먹고 놀고 싶어요. 친구들과 놀고 싶어요. 생일선물 필요 없어요. 대신 학교를 가기 싫어요. 내년엔 16이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다음 생일 때 집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케이크도 먹고 할 거예요. 근데 내 생일 때 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Halloween을 준비해야 돼요. 생일 때 이거 말고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생일을 너무 많이 해서 안 해도 돼요.



**다음 생일의 계획이나
생일 때 하고 싶었던 일**

김초연

내 생일은 October 1st에 있어요. 내 생일파티는 AirTime에서 하고 싶어요. 나는 아침에 너무 피곤하니까 나는 내 생일파티는 오후에 할 거예요. 내 파티에 내 친구들 원해요. 생일은 1:00pm에 시작하고 싶고, 8시쯤 끝날 거예요. 나는 맛있는 스키 먹을 거고, 프렌치프라이도 먹을 거예요. 나는 시간 남으면, 내 친구들과 같이 내 집에 가고 같이 게임할 거예요. 나는 학교에 숙제가 없을 거고 우리 집에서 친구들 같이 갈 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일을 안 하고 싶어요. 나는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쉬고 싶어요. 나는 TV show 볼 거고, 영화도 볼 거예요. 내 생일은 내가 쉬는 날일 거예요. 나는 Minecraft 하고 Roblox를 하며 놀 거고, 나는 Loki tv



show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DEATH NOTE 다시 보고 싶어요. 하고 집에서 많이 잘 설 거예요. 시간 남으면 나는 다시 그림 그리고 싶어요. 다 그렸으면, 나는 애니메이션 하고 싶어요. 이 활동하면서 맛있는 간식을 먹을 거예요. 나는 Hot Cheetos, Miss Vickies potato chips 하고 Oreos을 다 먹을 거예요. 나는 내 생일에 이거 다 하고 싶어요.

**다음 생일의 계획이나
생일 때 하고 싶었던 일**

수산나

어린이 때는 생일 축하하기가 재미있었습니다. 어른이 됐을 때는 쉬는 시간이 없고 친구들이 이사해서 생일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매년 제 생일에 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못 믿겠지만 내년엔 제가 34살 될 겁니다. 다음 생일 행복하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아침 시간을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오후 12시에 일어날 겁니다. 늦은 아침 위해 버터크림과 바닐라 케이크를 먹을 겁니다. 어렸을 때 제 생일에 아버지와 액션 영화를 봤는데 내년에도 아버지와 영화를 볼 겁니다. 영화 봐서 부모님과 축하하러 부모님 댁에 갈 겁니다. 뒤뜰에서 우리 강아지와 캐치볼을 할 겁니다. 캐치볼 하면서 많이 뛰어놀기 후에 우리 강아지가 잘 겁니다. 놀이 후에 저녁시간이기 때문에 디트로이트 스타일 피자를 주문할 겁니다. 고기 못 먹어서 버섯, 녹인 양파, 마늘 피자를 먹을 겁니다. 아버지도 피자를 드실 겁니다. 먹기 후에 어머니와 텔레비전을 보면서 선물 1개나 2개 열 겁니다. 집에서 도움 필요하니까 유용한 선물이면 좋겠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끝낼 때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할 겁니다. 우리 강아지를 껴안아서 집에 돌아갈 겁니다. 자기 전에 재미있는 책을 읽을 겁니다.

생일에 맛있는 음식 먹기, 부모님과 영화하고 텔레비전 보기, 강아지와 놀기, 독서할 수 있으면 다음 생일이 행복할 겁니다.

**다음 생일의 계획이나
생일 때 하고 싶었던 일**

이준현

저는 생일 때 가족들과 항상 레스토랑에 갑니다. 제가 평소에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제 생일은 1월에 있습니다. 올해 생일에는 제가 좋아하는 치킨윙을 먹으러 Buffalo Wild Wing에 갔습니다. 치킨윙도 먹고 어니언링도 먹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집에 와서는 가족들과 함께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생일 축하 노래도 엄마, 아빠, 형들과 동생이 불러줬습니다. 생일은 늘 신나고 행복한 날입니다.



**다음 생일의 계획이나
생일 때 하고 싶었던 일**

최서진

생일은 1년에 한번 오는 특별한 날이지요. 저는 이 특별한 날을 위해서 생일 364일 전부터 계획을 짜요. 다음 생일에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친구들과 놀고, 선물을 사고 싶어요.



먼저, 저는 생일 때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하고 싶어요. 엄마와 아빠 덕에 지금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지요. 또,

부모님 덕분에 많은 교훈들과 기술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생일 때는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하고 싶어요.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 아침밥을 지어주고 싶어요. 제가 만든 밥을 드실 때 뿌듯한 모습을 보면 저도 기쁘거든요.

다음에는 저는 친구들과 놀고 싶어요. 생일 때 친구들과 놀면 더 특별히 재밌어요. 친구들과 놀고 나서 간식을 먹고 그다음에 또 놀 거예요. 처음에는 축구 아니면 농구 같은 운동으로 시작해서 게임으로 끝날 거예요. 헤어질 때는 슬프지만, 놀 때는 재밌었으니까 기뻐요. 마지막에는 생일선물을 고를 겁니다. 생일선물은 제가 원하는 39½파비코리 인형을 사고 싶어요. 인형은 크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요. 그 인형 안는 거만 생각해도 기뻐요.

제 다음 생일에는 할 게 많아요. 먼저, 부모님을 위한 아침밥을 차려야 돼요. 다음에는 친구들과 재밌게 놀아야 돼요. 마지막에는 부모님과 파비코리 인형을 살 거예요. 재밌는 생일이 될 거 같아요.

다음 생일의 계획이나 생일 때 하고 싶었던 일

한준혁

일 년 중 가장 신나는 날 중에 하나는 내 생일입니다. 나는 항상 그날을 기대하며 내 생일까지의 날을 카운트다운 합니다. 나는 다음번 내 생일날에 내가 선택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다양한 이벤트 파티를 계획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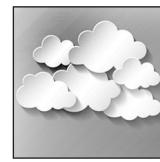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중 한 가지는 생일파티를 여는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을 모두 초대할 계획입니다. 이 파티는 "Pump it Up"이라는 장소에서 열릴 것입니다. Pump it Up에서는 다양한 공기 주입식 놀이기구 안에서 뛰어다니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



리는 술래잡기, 피구, 그리고 다른 우스꽝스러운 게임을 할 것입니다. 점심은 Pump it Up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피자를 먹게 될 것입니다.

이 파티가 끝나면 친구들이 준 선물을 잘 보관해두었다가 나중에 열어볼 생각입니다. 나는 선물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 있을지를 상상하며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저녁은 Red Robin에서 먹을 예정입니다. Red Robin에 가고 싶은 이유는 그곳에의 좋은 추억 때문입니다. Red Robin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한 대화를 나누는 가족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대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억은 저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비록 Red Robin에서의 음식은 그리 좋지는 않지만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그곳을 갈 것입니다.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일날을 마무리하며 쌓아 두었던 선물들을 드디어 열어볼 것입니다. 저는 포장지를 찢어서 포장 안에 숨겨진 물건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비록 내 생일은 하루뿐이지만 주위 사람들이 나를 아껴준다는 행복감은 생일이 지나도 영원할 것입니다.



하늘반

2022-2023 하늘반을 가르치며...

하늘반 친구들! 우리가 만난 지도 언 2년이 되었네요. 줌 수업에서 컴퓨터 속 화면으로 얼굴만 보다가 작년 6월에 여러분을 처음으로 직접 만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보다 키도 훌쩍 더 큰 어른 같은 우리 반 학생들이 어찌나 늠름하고 예쁘고 멋있던지! 10월 새 학기에 다시 만나 드디어 대면 수업을 시작하게 됐을 때는 또 얼마나 기쁘고 설레던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우리 하늘반 친구들의 똑똑한 활약을 실제 수업에서 보게 돼서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선생님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한국어를 넘어서 다양한 한국 문화와 역사를 배우면서 자신의 좋고 싫음을 분명하게 말할 줄 알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나 취미에 대해 친구들과 활발하게 공유하고, 열심히 글짓기를 하고 나서 계속 언제 상을 받냐고 연신 궁금해하는 솔직하고 꾸밈없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은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에 사는 한국계 청소년들에 대해 하나도 몰랐었는데,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며 차곡차곡 쌓아온 시간들이 이제 어느덧 추억으로 바뀌어 가고 있네요.

힘든 학교생활과 대학 입시 준비에도 싫은 내색하지 않고, 오랜 기간 토요일 아침이면 꼬박꼬박 세종 학교에 나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자 했던 여러분의 그 열정과 끈기로, 이제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넓지만 세계는 하나랍니다! 다시 또 만나게 되길~



중독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세종대상 한수혁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중독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 스포츠, 음식 등 많은 것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중독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책임을 다하는 것과 같은 더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미래는 물론 사회 전체를 해칠 수 있습니다.

중독된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중독에 관한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잘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람들의 중독을 돕기 위해 거의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1992년에 SAMHSA(약물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국)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형태의 중독이 아닌 약물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약물 중독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언만 제공합니다.

다른 형태의 중독이 있는 사람은 친구와 함께 중독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는 당신이 특정한 것들에 중독된 것에서 벗어나 수 있도록 해주는 다른 일을 찾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흥미 있는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자신이 가진 책임이나 슬픔을 유발했던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좀 더 빨리 회복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물 남용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다른 중독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중독에도 빠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조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즐거움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성취감을 찾는다면 좋지 않은 다른 것들에 중독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사귀고 그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사람은 나쁜 것에 중독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꿈

하늘상 김 결

아직도 기억나요. 처음으로 인체학 책을 펼쳤을 때 매력적인 핏줄, 근육, 그리고 뼈를 보면서 느꼈던 그 느낌. 절대로 잊지 못할 느낌입니다. 그때는 제가 유치원생이었어요. 이제 거의 13년이 지나고 나서도 아직도 저의 꿈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의사들이 있습니다. 내과 쪽에는 약국 의사, 심리학 의사, 피부과 의사 등이 있고 외과 쪽에는 정형외과 의사, 심혈관 외과 의사, 신경외과 의사 등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신경외과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왜 하필 엄청 어렵고 자유시간이 없고 근무 시간도 긴 신경외과 의사냐고요? 저는 신경, 특히 뇌를 매우 매혹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 추억, 도덕과 윤리, 그리고 성격이 젤리 같은 물질에 들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7학년 때부터 저는 중추 신경계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굿닥터>라는 의학 드라마에서 뇌 수술 장면이 나왔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신경외과 의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12학년으로 대학 등록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그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의사가 되고 싶었고 특히 신경외과 의사가 되고 싶었던 꿈이 이제 막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비록 외과 의사라는 직업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서도 거의 20년 동안 더 공

부를 해야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하고 나서 회복한 환자의 미소를 보면 모든 게 값진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 꿈은 신경외과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유산을 대하는 나의 자세

아름다운상 이진영

한국 문화는 태어날 때부터 제 삶의 주요 부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것, 집 안에서 신는 슬리퍼, 어른들에게 절하는 것 모두가 다른 미국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부분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가 또래들과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습니다. 도리토스를 먹는 친구들 옆에서 저의 새우깡이 이상하게 보였고, 다른 학생들이 저의 특이한 간식을 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자, 저는 제가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샌드위치나 런처블과 같은 “보통” 음식을 싸달라고 애원한 후, 저는 마침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린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망스럽게도 제 역사 수업에서 모든 학생들이 그들의 문화유산에서 유래한 음식을 가져와서 발표하는 프로젝트를 열었습니다. 저는 인종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났고, 그것은 내 간식에 이상한 불편한 시선을 받았던 때로 즉시 되돌아갔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저는 반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고르려고 머리를 짜냈습니다. 결국, 저는 “아시아적인 냄새가 가장 덜 나는” 음식인 잡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 발표 주간이 다가오면서, 저는 선생님이 학생을 무작위로 지목하면 자신이 가지고 온 음식을 가지고 나와 발표하고 공유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부르시기 시작할

때마다 저는 허공 속으로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발표를 할 때 저는 건성으로 모든 것을 먹었고, 제가 수업 내내 정말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해했을 때, 마침내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긴장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를 내려다보온 시선을 느끼면서, 저는 “올 아메리칸” 친구들이 가져온 음식들로 가득 찬 큰 테이블로 재빨리 달려갔고, 놀랍게도 거기서 저는 저의 잡채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는 다채로운 음식들의 용광로에 딱 들어맞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2세대 한국계 미국인 아이로서, 저는 제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만 알았지만, 그날 저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후, 저는 제 자신의 다른 그 부분을 더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계가 아닌 친구들이 비록 제 억양을 재미있어하더라도, 한국어의 뉘앙스를 함께 나누는 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저는 한글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린 한국 아이들이 제가 한때 힘들었던 언어와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무척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한국 유산은 나의 미국인 정체성의 아름다운 부분이고 자랑스러운 부분입니다.

나의 꿈

강솔푸른

미국은 강대국으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픈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 병원에 스스로 차를 몰고 가야만 합니다. 구급차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수천 달러의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의료의 또 다른 문제는 의료 전문가의 부족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의료전문가의 부족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전문 인력이 부족했고, 병원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 전문가의 손길이 닿지 않은 많은 환자들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을 치료할 장비 또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삶에 대한 욕심을 버린 노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병상을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상황을 집에서 TV 화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저렴하고 더 나은 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의 경우, 발달한 의료 시스템과 국민 의료보험 덕분에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의료 서비스의 질도 한국처럼 향상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를 돌보는 의료 전문가가 되고자 합니다. 제 꿈은 미국에서 간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간호사로서 작으나마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내가 가진 기술로 자원봉사를 하길 원합니다. 이로써 의료 혜택을 입을 수 없는 환자들의 얼굴에 미소를 돌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환자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환자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곁에 있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보람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원하고,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Restored Bulguksa Temple
〈법정 스님 수필집'무소유'중,
복원 불국사 일부〉영어 번역

김도희

Regardless of the midday temperature, the breath of autumn comes today. Early this morning, I found lots of hasty leaves lying down around the well.

Hang at the tip of branches, the thick fog might have weighed on the branches so heavily. While sleeping, I often hear the sound of a squall pouring down in the night forest. It seemed like the rain devoted its last passion. Washed by the rain, the sky has become so high. Now the clouds are not those which used to be thick and dark during sum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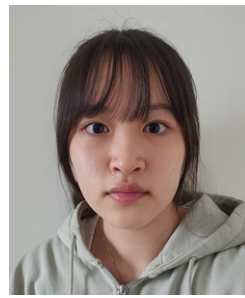
(한낮의 기온에는 아랑곳없이 초가을의 입김이 서서히 번지고 있는 요즈음. 이른 아침 우물가에 가면 성급한 낙엽들이 흥건히 누워 있다. 가지 끝에 서성거리는 안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져 버린 것인가. 밤 숲을 스쳐가는 소나기 소리를 잠결에 자주 듣는다. 여름날에 못다 한 열정을 쏟는 모양이다. 비에 씻긴 하늘이 저렇듯 높아졌다. 이제는 두껍고 칙칙하기만 하던 여름철 구름이 아니다.)

My chronic illness might be recurring. I have a sudden impulse to start off leaving everything behind. Tied nowhere, my wings wanting to fly are about to spread out. So I went to Bulguksa Temple. Restored Bulguksa Temple.

(묵은 병이 불쑥 도지려고 한다. 휘휘 털어 버리고 나르고 싶은 충동이. 어디에도 매인 데 없이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 날개가 펼쳐지려 한다. 이렇게 해서 엇그제 다녀온 곳이 불국사. 새로 복원되었다는 불국사다.)

When autumn comes, I visit Geongju from time to time. Seorabeol, which had the thousand-year dream of Shilla. Although it might be one's first visit, Geonju feels familiar with friendly scenes that I can encounter everywhere. Now I can only see that the foundation stone of Hwangnyongsa Temple has been buried. And Namsan Mountain with its connected ridges makes me relaxed and nostalgic, and this is what the city Geongju is like.

(가을이면 불쑥불쑥 찾아 나서는 경주, 신라 천 년의 꿈이 서린 서라벌. 초행길에도 낯이 설지 않은 그러한 고



장이 경주다. 어디를 가나 정겨운 모습들. 이제는 주춧돌마저 묻혀 가는 황룡사, 그 터만 보아도, 그리고 안산인 남산과 좌우로 연해 있는 그 능선만 보아도 마음이 느긋해지고 은은한 향수 같은 걸 호흡할 수 있는 고장이 또한 경주다.)

In Geongju, just like any old capital city, I am attracted to its atmosphere that seems empty and unfilled somewhere, feeling as if I were at the port where all ships had left.

Above all, Bulguksa is a temple which is full of traces of an empty and poor thousand-year-old Shilla. (어디나 옛 도읍지에 가면 느끼게 되듯이 경주도 어딘지 텅 빈 것 같은, 뭔가 덜 채워져 아쉬운, 그래서 배 떠난 나루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마음을 끈다. 그중에서도 불국사는 허전하고 안타까운 신라 천 년의 잔영을 한 아름 지닌 가람이다.)

다양한 종교 차이에 대처하는 법

이지원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와 천주교부터 불교, 유대교까지 모든 종교는 그에 따른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활발해진 사람들 간의 소통과 문화 교류로 인해 특정 종교의 이미지가 나빠지거나, 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늘어난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수도 없이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 만큼, 그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과 문화 또한 다르다. 그중에 맞거나 틀린 것은 없다. 다만 어떤 종교는 어느 가치를 더 추구하며, 어떤 종교는 어느 삶의 방식을 따르느냐 정도가 다를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각각의 입장이 있으며 그 입장이 직접 되어 보지 않는 이상 우리



는 다른 사람들의 방식을 평가할 이유가 없다.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과정에는 '이해'조차 필요 없을 수 있다. 그저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가짐으로 '세상에는 이런 종교도 있구나', '이런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특정 종교가 나쁘게 보인다고나 옳고 그름에 연연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잘 안 통할 때도 있다.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활동은 잘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몇몇 종교인들의 언행이 과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특히 시대의 변함에 따라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종교인들과의 마찰이 일어나곤 한다. 종교를 가지며 본인이 긍정적인 무언가를 깨닫고 좋은 영향을 끼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깨달음을 본인이 느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또한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서 그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종교에서 느끼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듯한 극소수의 종교인들은 종종 타인에게 본인의 종교를 지나치게 강요할 때가 있다. 내가 느끼기에 이런 현상은 앞서 말한 '받아들이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인 것 같다. 내가 아무리 좋은 종교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닐 것이며, 이러한 점을 놓치고 종교적인 무언가를 계속 강요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융통성'이다. 시대가 계속해서 변하는 만큼 더 이상 종교의 정통성을 따르기에는 힘든 점들이 많아진다. 전통을 유지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시대와 지나치게 엇나간다면 그로 인해 무력 충돌이나 심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변화하는 사회와 종교의 정통성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아 융통성 있게 종교 활동을 하는 것도 나는 중요하게 여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어느 불교 사찰에서는 새벽 3시에 기상하는 것이 출가자 감소의 이유라 여겨 기상 시간을 한 시간 늦췄다고 한다. 이렇게 시대에 발 맞춰 움직이다 보면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저절로 존중하게 될 것이고 보다 더 건강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학교를 졸업하며



이진영

저는 세종학교가 싫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 오는 것을 무척 싫어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토요일, 거의 틀림없이 일주일 중 최고의 날에 쉬면서 놀고 있는 동안 저는 한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 교실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미 주중에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또 한국어로 다시 공부하는 것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은 항상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아이들처럼 토요일 아침 늦잠을 자거나 축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토요일에 친구들이 놀자고 하면 나는 세종학교에 가야 한다고 대답했고, 그것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나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었어요.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은 또 나를 미국 친구들과 다르게 만든다고 느껴서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해보면 그것이 진정 나를 “한국계 미국인”으로 제대로 만들어 준 것이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한국의 문화를 알고 그것을 미국 친구들에게 잘 전달할 줄 아는 것이 미국, 즉 문화의 용광로 속에 살고 있는 저를 가장 “저답게” 만들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방송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알려 주고, 이 모든 “한국스러움”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세종학교에서 경험한 날들을 행복한 기억으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마음을 바꾸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해 주는 것을 감사히 여기라”라고 말입니다. 나에게 열린 마음을 갖게 해준 세종학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종학교를 졸업하는 것



한수혁

세종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저에게 쓸쓸하면서도 달콤한 경험입니다. 제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새로운 기회를 추구할 수 있어 기쁜 한편, 학창 시절을 함께했던 소중한 친구들과의 추억들을 두고 떠나게 되어 무척 슬픉니다.

세종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경험은 서로 다른 배경과 삶의 방식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배운 것입니다. 저는 그들과 저의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었고 학교생활이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지원했습니다. 이 우정은 평생 저와 함께할 것입니다.

또 세종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흥미 있었던 것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운 것입니다. 한국이 근대 국가이기 이전에 존재했던 고대 국가들, 왕조들, 그리고 한국전쟁의 영향,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급속한 경제 성장과 근대화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역사의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 대해 배우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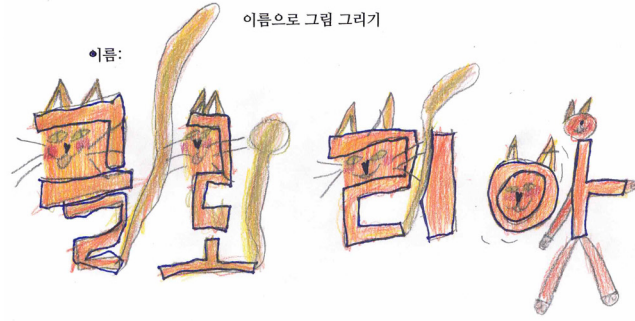
이제 저는 세종학교를 졸업하게 되어 만감이 교차합니다. 모든 학업을 마친 제 자신이 뿌듯하기도 하지만 익숙하고 편안한 학교 환경을 뒤로하고 떠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는 세종학교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잘 준비하게 해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종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저에게 풍요로운 경험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소중한 우정을 쌓고 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한국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항상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돌아볼 것입니다.

세종학교에서 처음으로 한글을 가르치며 만난 신입반은 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한글학교 첫날 서로 자기소개를 할 때가 생각합니다.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쑥스러워 이름밖에 서로 나누지 못하던 아이들이 지금은 서로가 친구가 되어 즐겁게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뿐인 한글 수업이지만 아이들이 그동안 많은 성장을 해온 것이 눈에 보입니다. 모음, 자음을 반복적으로 읽고 쓰며 낱말을 배우는 과정이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매주 노력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면 더 열심히 가르쳐 주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질문을 하면 서로 대답을 하려고 손을 번쩍 들던 모습도 생각합니다.

신입반은 학년이 다르지만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도와가며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서로 응원하고 도와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종학교가 한글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곳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열심을 다해 한글을 배우고 있는 신입 반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관심과 협조 그리고 끊임없는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충분히 잘할 거라 믿으며 아이들이 유창하게 한국어로 말을 하고 읽고 쓸 날이 곧 다가올 것으로 생각하며 기대합니다.



이름:
 이름으로 그림 그리기
 이름: 김보민
 저의 이름은 김보민입니다.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김범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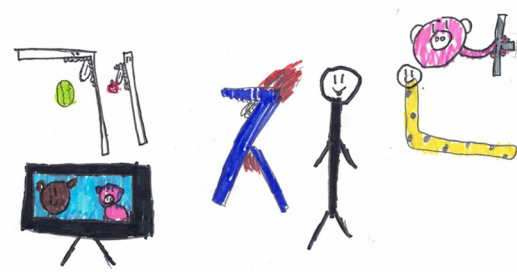
저는 아버지와 낚시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름: 김준
 이름으로 그림 그리기
 이름: 김준
 저의 이름은 김준입니다. 저 커서 자동차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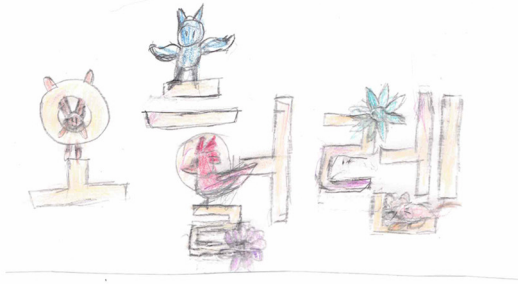


이름으로 그림 그리기
이름: 김지안



저의 이름은 김지안입니다.
저는 커서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이름:
오혜린



저는 혜린이예요.
한글 배우는 것이 재미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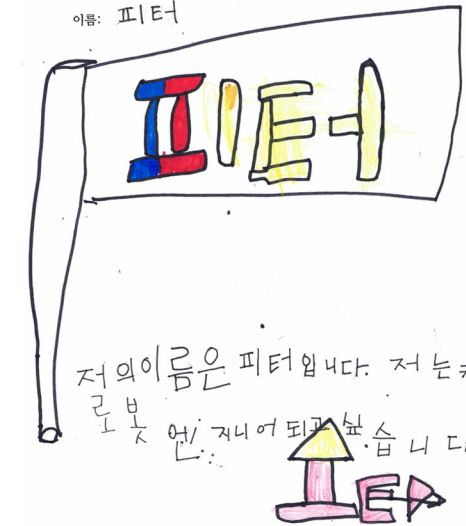
이름으로 그림 그리기
이름: 양준수



저의 이름은 양준수입니다.
저는 커서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이름으로 그림 그리기
이름: 피터



저의 이름은 피터입니다. 저는 커서
군부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이름으로 그림 그리기
이름: 오수지



저의 이름은 오수지입니다.
저는 한글 배우는 것이 즐겁습니다.





종달새반

교사 이재선

안녕하세요!!

종달새반을 맡은 담임 이재선입니다.

올해 종달새반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가득한 다섯 명의 학생들과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인 어머니 제스와 딸 에비, 인도계 미국인 맘따와 딸 아뉴쉬카, 그리고 한국인 아내와 아들 셋을 낳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신 아버지 제시

각자 다른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모였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는 열정 덕분에 매주 신나고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학기에는 개인 사정으로 두 명만 계속해서 한국어 수업을 같이 하게 되었지만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더욱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한국 문화의 위상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앞으로도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언어가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서 끊기지 않고 이어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시카 마이너

제 이름은 제스예요.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직업은 선생님이에요.

저는 딸 에비와 강아지 두 마리 하고 살아요.

뮤지컬을 좋아하고 춤을 좋아해요.

세종학교 한국어 수업을 좋아해요.

언젠가는 한국에 꼭 가고 싶어요.



에비 마이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비예요.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학생이에요. 열다섯 살이에요.

저는 책 읽기, 글쓰기, 노래하기 그리고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해요.

세종학교 한국어 수업을 좋아해요.

한국어를 잘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맘따 발라수브라마니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맘따예요.

미국 사람이에요.

남편과 딸, 강아지하고 살아요
음악, 노래하기, 책 읽기, 요리 하는 것을 좋아해요.

K-드라마, K-Pop 을 아주 좋아해요.

세종학교 한국어 수업을 좋아해요.

세종학교 좋아해요.

우리 한국어 선생님을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아뉴쉬카 발라수브라마니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뉴쉬카예요.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열세살이에요. 학생이에요.

K-드라마 좋아해요.

세종학교 좋아해요.

우리 한국어 선생님을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총총총총총
타타타타타
우다다다다
즈어억찌억

수줍은 발걸음, 자신감이 넘치는 발걸음, 신나는 발걸음, 음악실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발걸음... 제가 매주 토요일 10시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음악실로 들어오는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입니다.

1교시는 토끼, 나비, 개나리반 친구들의 수업 시간입니다. 50명이 훌쩍 넘는 대규모(?)의 수업이지만 종알종알 어찌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수다쟁이 친구들이 많아서 수업 진행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법같이 노래 전주가 나오면 친구들의 엉덩이가 자동적으로 쫄쫄쫄 합니다. 내재되어 있는 한국인의 흥이 이런 걸까요? 물론 울동하는 선생님을 조용히 앉아 끝까지 감시 또는 구경(?)하는 점잖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개사의 능력이 탁월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콩'나물 노래를 '똥'나물로 부르기도 하고 손이 시려워 '뽕' 노래를 순식간에 방귀쟁이 뽕뽕이 노래로 바꿔 부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손이 시려워 '뽕~' 겨울바람 때문에 '뽕뽕뽕~!'처럼 말이지요. 뭘 해도 사랑스러운 토끼, 나비, 개나리반은 제 토요일 오전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2교시는 매화, 난초반의 수업인데 이 친구들은 노래를 정말 좋아하고 잘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말로는 "노래 부르기 싫어요! 울동 안 해요! 그만할래요!"라고 하면서 반주를 틀어주면 열심히 따라해주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제 눈을 피해 교실 뒷쪽에 숨거나 화장실에 숨어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잡아 오느라 그동안 제 멘탈이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나 할까요? 하하. 그래도 가사가 어려운 노래들을 잘 외워서 울동과 함께 불러주는 아이들이 고마울 뿐입니다.

3교시는 무궁화, 장미반의 수업입니다. 확실히 큰 언니 오빠라서 그런지, 제가 몇 년 전에 가르쳤던 친구들이 많아서 더 편해서 그런지 아이들과 티키타카도 되고 동요가 아닌 다른 음악들까지 다룰 수 있어서 참 즐거웠던 수업이었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행사 중 하나인 예술제 무대를 준비하면서 몇 달간 준비해온 합창이 생각만큼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길래 제가 합창을 제외하고 리코더 연주만 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생각과 다르게 너무 적극적으로 본인들은 꼭 이 노래를 불러야겠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결국 노래를 부를 예정입니다. 아이들을 지도해 온 교사로서 상당히 걱정(?)은 되지만 한편으로는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게 창피하고 싫어질 나이도 됐는데 알아서 해준다니 고맙고 기특하기도 합니다.

음악 시간에 배운 노래와 울동, 악기 연주 등을 통해서 한국어 실력도 늘고 한국의 문화도 배우는 것은 물론 우리 세종학교 아이들의 삶이 음악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음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해 준 토끼, 나비, 개나리, 매화, 난초, 무궁화, 장미반 친구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무용을 수업하고 있는 한아름입니다

제가 이번 수업에서는 부채춤과 소고춤을 수업했는데 아이들과 같이 즐겁게 수업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먼 타국에서 한국의 문화를 배울 기회가 있어 정말 너무 감사한 거 같습니다.

저 또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국 무용을 배우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또 그 동작을 응용하여 더 어려운 동작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힘들어하고 지루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작과 작품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더 성장하며 한국 문화를 배우고 또 연습하는 가운데 협동심도 배웁니다. 그리고 예술제를 통해 그동안 배운 것을 무대 위에서 보여주며 성취감과 자신감도 생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께서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번 예술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경험이 나중에 생각했을 때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미술반 첫 수업을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어느덧 학기 마지막이 되어갑니다. 여러 학년의 미술수업을 맡은 것이 처음에는 부담도 되었지만, 미술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세종학교 학생들이 미술에 갖는 흥미와 같은 수업안에서도 다양하게 표현해 나가는 것을 보며 저 또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미술 표현기법을 익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양한 시도를 하려고 재료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힘든 점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미술수업을 항상 기다린다는 말들이 저에게 힘이 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연령대가 다 틀리고 한국말이 익숙지 않아서 힘들었을 신입반 아이들, 서툴러서 힘들었을 수도 있음에도 끝까지 잘 따라와 줘서 너무 고마웠고, 토끼 반 아이들이 선생님을 부르면서 미술반으로 뛰어오는 소리와 다 만든 작품들을 흔들면서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한 입시로 힘들어하는 하늘 반 아이들이 미술시간이 힐링이 된다면 열심히 그림을 그리며 끝까지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니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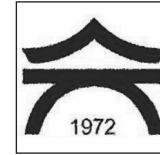
수업을 마치는 시점이 되어보니, 해주는 못한 것들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열심히 따라와 준 세종학교 학생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토끼반 미술수업할 때 절대적 도움이 되었던 봉사자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물놀이, 난타

교사 Torey Powers



태권도

교사 최재훈



친구클럽

회장 강솔푸른

세종학교의 친구 클럽은 회원들이 어린 학생들의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는 동아리입니다. 우리는 매주 도서관에서 학생들의 숙제를 돕고 함께 책을 읽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한 것이 이 모임의 목적이지만, 저는 제 스스로 친구 클럽을 이끌고 참여하면서 많은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친구 클럽은 저에게 클럽 회장으로서 강한 책임감과 뛰어난 리더십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다른 회원들과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어린 학생들에게 꼭 맞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들과 맞는 회원들과 팀을 짜주고 서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클럽활동을 해오면서 학생들과 정해진 숙제를 끝내는 것 이외에 한국과 한국 문화에 관련된 더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운 점도 많이 있지만, 저는 동아리 회원들과 깊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고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 소중한 추억을 얻었습니다. 그와 함께, 저는 우리 클럽에 와서 함께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처럼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도와준다면 이 학생들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K 클럽

회장 이지원

안녕하세요, 2022부터 세종학교 프로젝트 K 회장을 맡고 있는 11학년 이지원입니다. 10학년 때 처음 회장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하고 메일을 받았을 때에는 클럽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특히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클럽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 또한 앞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회장으로서 제가 할 일이었고 그것들을 해냄으로써 얻을 보람을 알기에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많았지만 차근차근 해나가며 스스로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클럽 회원이 아닌 회장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클럽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습득하며 미래에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쓸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을 찾은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예를 들어, 클럽 회원을 모으기 위해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클럽을 회원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길로 이끌어갈지, 어떤 활동들이 쉬우면서도 재미있고 유익한지, 그런 활동들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나가며 또 클럽 밖의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할지 등, 새롭고 다양한 길들을 찾고 배웠습니다.

프로젝트 K의 활동 목적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미국 사회에 알리는 것인 만큼,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고 있지만 미국 한인 사회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체감했습니다. 저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쉽게 우리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국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보다 쉽고 간단하게 풀어내는 방법도 익혔습니다. 이 또한 나중에 제가 사회에 나가서 저의 뿌리를 이야기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보람찬 과정이었습니다.

회장으로서, 특히 팬데믹 중 클럽을 시작해 분명히 힘든 점도 많았고 생각보다 잘되지 않는 부분도 많았지만 그만큼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지만, 2년이 다 되어가는 기간 동안 느끼고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하나씩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 Newsletter Club

회장 김도희

저는 7학년 때 미국에 처음 왔지만 한국을 떠난 것은 제가 4학년 때였기 때문에 저의 한국어 실력이 점점 퇴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 세종학교라는 한국 학교를 발견하고 기뻐서 바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딘가 모르게 계속 동떨어진 느낌이 들었던 저는 세종학교를 다니면서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공기, 새로운 사람과 계속 만나면서도 저는 왠지 모르게 빠져버렸었습니다. 하지만 세종학교를 다니면서 나와 비슷하게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학생들을 만나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어딘가에 자연스럽게 속해있다는 게 이렇게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문화. 이 두 글자가 얼마나 큰 의미이고 얼마나 다양한지를 세종학교를 다니며 저는 더욱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세종학교에서 배운 것은 한국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배울 때 좀 더 나의 정체성의 뿌리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한글로 표현하는 방법도 배웠죠. 어떤 사람들은 한국인이면서 한국에 대해 왜 배우냐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 자신에 대해 계속 공부하고 질문해야지 자신을 잘 알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학교를 다니며 저에 대해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매우 다행인 것 같습니다.

세종학교에서 보낸 약 5년 동안 친구들과의 얘기나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수업에서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나온 이야기나 자신들의 의견을 통해 저도 다양한 관점을 생각해 볼 수도 있었죠. 선생님의 이야기나 경험들도 제가 지금까지 생각도 못 해본 주제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또 세종학교에서 뉴스레터 클럽 회장을 맡아 뉴스레터도 만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한글로 글을 쓰고, 학생들의 글을 정리하고 편집하는 다양한 경험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한 주제에 대해 학생들의 글들이 모여 하나의 완성도 있는 뉴스레터가 만들어졌을 때의 성취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아주 뿌듯했습니다.

사실 세종학교를 다니면서 귀찮거나 학교에 가기 싫을 때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세종학교를 다니며 만날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한국에 대한 지식 그리고 나의 뿌리에 대해 알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세종학교를 다닌 것이 전혀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저의 토요일을 가치있게 만들어준 세종학교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K-Rise

회장 김 결

저는 세종학교에 다닌 지 거의 8년이 되었고 그동안 학교의 여러 클럽에 참여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은 K-rise와 친구클럽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 두 클럽에 가입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면서 클럽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겼고, 지금은 이 두 클럽의 리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클럽 활동을 하면서 저는 제 자신과 다른 클럽 구성원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K-rise의 경우 팬데믹으로 인해 이전 구성원들이 졸업을 하거나 세종학교를 떠나게 된 상황에서 급하게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회원을 모집해야 했고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K-rise의 회원이 얼마 되지 않아 여전히 고전 중이지만 예전에 인기 있었던 K-rise 클럽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열심히 할 것입니다.

친구클럽을 통해 제가 배운 점도 많습니다. 새로운 개념과 아이디어로 어린 친구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해야 했고, 간결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의사소통 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로체스터와 노바이 두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친구클럽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른 리더들과도 협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저는 클럽활동에 열심히 참여해서 리더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두 클럽에서 많이 성장했고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이 클럽을 통해 자신의 열정을 찾을 수 있도록, 자신에게 맞는 클럽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제27회 세종 동요대회

대상 룰랑 라엘(매화반)
 금상 김정운(개나리반), 김예인(난초반)
 은상 김하니(나비반), 함예서(나비반), 박채원(난초반), 오소망(난초반)
 동상 김노아(나비반), 박시원(나비반), 박정연(개나리반), 김주원(매화반), 곽시울(매화반), 조수민(난초반)

장려상

박서연, 서아연, 최성우 (난초반)
 김이안, 서민솔 (매화반)
 김이안, 조아인 (개나리반)
 이기원, 임리엘, 황윤아 (나비반)

노력상

김지후, 조이안, 최은서 (난초반)
 김려환, 김성협, 김지민, 박준하, 박태양, 최혜서 (매화반)
 김시원, 이기윤, 올리비아 쉐 (개나리반)
 김하나, 김해나, 주지희, 최은우 (나비반)
 김선준, 김연우, 김하윤, 김희영, 박은비, 안서준, 윤이든, 이나윤, 이로운, 이현, 임이든, 정다운 (토끼반)



제31회 세종 글짓기 대회

세종 대상: 한수혁 (하늘반)

4학년 무궁화반: 이래나(무궁화상), 이은서(아름다운상), 오은수(고운상), 정연우(예쁜상)

5학년 장미반: 김이준(장미상), 최예린(아름다운상), 이라엘(고운상), 김연서, 이강(예쁜상)

6학년 해반: 오지수(해상), 박나연(아름다운상), 박다연, 김재인(고운상), 이준우(예쁜상)

7학년 솔반: 박재연(솔상), 김이안(아름다운상), 최성민(고운상)

8학년 달반: 신연우(달상), 박연서(고운상)

9-10학년 별반: 윤수은(별상), 김세희(아름다운상), 윤지환(고운상), 하준형(예쁜상)

11-12학년 하늘반: 김 결 (하늘상), 이진영(아름다운상)





제16회 세종 골든벨 우승자

난초반: 박서연, 최성우
 무궁화반: 이래나 / 장미반: 양지훈
 해반: 김재인, 한민혁
 솔반: 최성민 / 달반: 박연서
 별반: 한준혁 / 하늘반: 이지원



2023년 세종 이야기 대회

대상 양지훈 (장미반)

유년부

1등 라엘 롤랑(매화반)
 2등 김정운(개나리반)
 3등 노현선(매화반)
 장려상 함에서(나비반), Eric Wright(개나리반)

노력상

토끼반: 김선준, 김연우, 손운재, 윤이든, 이로운, 임이든, 정다운
 나비반: 정승락, 주지희, 황윤아 / 개나리반: 김려준, 박정연 / 매화반: 김려환, 김성협, 김이안

초등부

1등 김가운(무궁화반)
 2등 오은수(무궁화반)
 3등 전래오(무궁화반)
 장려상 최성우(난초반)

노력상

난초반: 박서연 / 무궁화반: 김영제, 김예나, 이은서, 이지우, 정수진

중고등부

1등 최서진(별반)
 2등 이준우(해반)
 3등 오지수(해반)

특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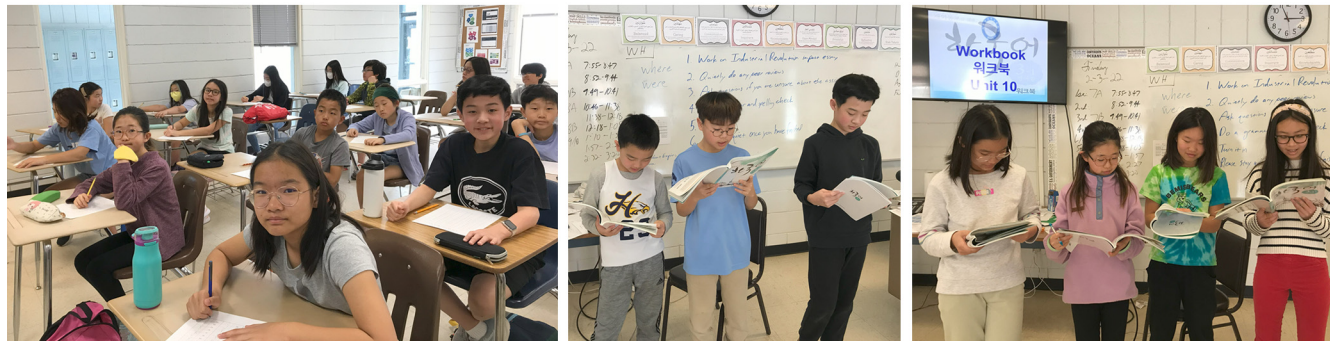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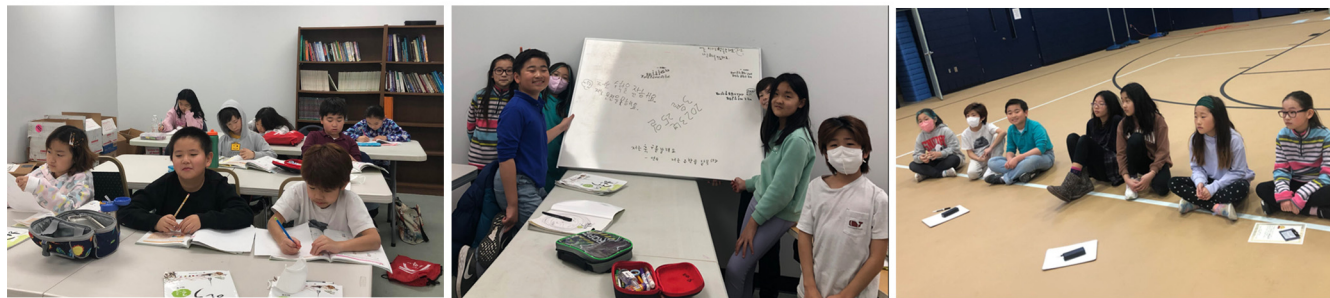
특별상 호프 수산나(별반)
 장려상 길이안(개나리반), 김재인(해반)

노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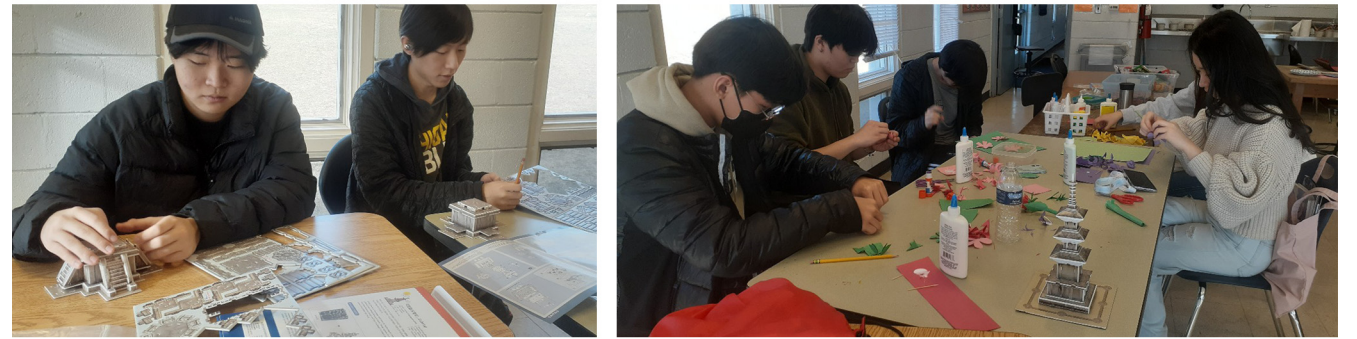
토끼반: 길유안, Robin Wright



세종의 오늘



세종의 오늘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Sae Jong Society of Detroit